

4차 생태사회포럼:

지역, 마을, 공동체의 대안- 생협운동과 대안사회 실험

3차 포럼은 '생태민주주의와 대안적문화'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라이프스타일과 문화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느낌의 가치에 대해서 공감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와 가치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인데 환경연합이 그동안 펼치던 주창주의운동이 아니라 풀뿌리 대안운동에서 진행되고 있고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환경연합 운동은 시민들을 못 쫓아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대안운동은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의 창발성을 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바뀌어 버리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세상에서 바닥부터 시민들을 바꾸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의 단초를 풀뿌리 대안운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와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연합 같은 주창운동은 이런 풀뿌리 운동과 어떻게 만나고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요.

○ 날짜와 시간 : 12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10:00 ~ 10:20 참가자 소개

10:20 ~ 11:30 발표

11:30 ~ 12:30 1차 토론

12:30 ~ 13:00 점심

13:00 ~ 14:00 2차 토론

○ 내용

- 마을과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중앙중심, 언론 중심의 운동과 풀뿌리 지역 중심 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 마을 운동, 풀뿌리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은 어떻게 만나고 연대할 것인가?

○ 사회: 박혜영 교수

○ 발표 및 토론 자료

- 유창복(성미산마을극장 대표): 도심 내 공동체 운동, 나의 마을살이 10년 2
- 조병민(한발레츠 감사/민들레의료생협 사업지원부장): 지역화폐와 대안경제 33
- 임중환(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 인하대의대 교수): 지역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54
- 김용우(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지역농업위원장): 협동조합운동으로 지역사회 만들기 - PPT 자료
- 조병민: 지역화폐와 대안경제 - PPT 자료

○ 토론

- 관련 전문가: 임중환(인하대 산업의학)/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진상현(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관련 지역운동가: 이현민(부안시민발전소)/ 장이정수(동북여성환경연대)/ 유중준(당진 환경연합)

나의 마을살이 10년 - 이제 마을하자!

성미산 마을 극장 대표 유 창 복 (짱가)

I. 들어가면서

‘마을’이라는 ‘명명’

‘마을’이라는 말, 요즘 들어 제법 자연스레 쓰고 있는 것 같다. 이 마을에 오래 살아 온 이들이나 새로 이사 온 새내기 주민들을 불문하고 당연스럽게 성미산마을, 마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다. 마을이라는 말이 이렇듯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정확히 그 시점을 짚어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성미산지킴이운동을 계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

2년여에 걸친 성미산지킴이운동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성미산 자락에 살고 있는 지역¹⁾의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별나게 열성이던 이 젊은 부부들의 집단을 ‘성미산 지킴이들’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 ‘성미산 지킴이들’이라는 복수형 명칭²⁾은 한편으로는 성미산을 지켜낸 자랑스러운 주민들이라는 칭찬의 뜻과 함께, 지역개발의 기회를 날리게 한 뭔가 과격한(?) 듯한, 이상한 정체불명의 집단들이라는 의구심을 함께 담고 있는 이중적인 호칭이었다. 그 후 성미산지킴이운동의 주역들은 지역에서 ‘성미산 지킴이들’이라는 공동의 호칭을 훈장(?)처럼 얻게 되었다.

한편, 성미산지킴이운동의 성공적인 투쟁의 성과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우리의 투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여러 시민단체들이 성미산투쟁 이후 성미산 지킴이들이 벌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³⁾에 주목하여, 이 지역을 성미산마을이라고 부르면서 일반화되게 되었다.

즉, 지역의 주민들이 성미산투쟁의 주체들에게 붙여준 ‘성미산 지킴이들’이라는 호칭과 시민단체들이 우리의 활동의 의미를 주목하면서 명명하기 시작한 ‘마을’이라는 말이 결합하여 비로소 성미산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결국 성미산마을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마을 바깥에서 불러주기 시작한 이름이며, 덩달아(?) 우리들도 사용하게 된 이름이라 하겠다.

마을의 다양한 구성

그럼 성미산마을은 무엇인가? 마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어느 구역이 마을이고 어느 구역이 마을 밖인가? 마을의 경계는 어디인가? 물리적인 혹은 행정구역상의 경계가 아니라면, 마을이라는 규정의 내용적인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즉 마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자연스레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고 있는 마을이지만,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마주하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질문은 사람마다 답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그 질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감’조차도 다른 것이 보통이다. 즉 마을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여러층의 그룹을 형성하며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다. 대체로 세대에 따른 그룹과 커뮤니티 접촉지점에 따른 그룹, 활동의 심도에 따른 그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성미산을 둘러싼 동(洞)들로서 성산, 서교, 망원, 합정, 연남 등 5개동을 말한다.
 2) 지역의 주민들이 성미산을 지켜온 커뮤니티 사람들을 부를 때, 유독 복수형을 사용하곤 했다. 그것은 이들이 주민들에게 항상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뭔가 조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은 아닐까.
 3) 대표적인 활동으로 성미산車병원과 동네부엌, 그리고 성미산학교의 설립, 및 마포두레생협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세대에 따른 그룹을 보면, 14년 전 우리어린이집 설립 당시부터 살아온, 마을의 시초부터 그 기억을 소상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막 이사 와서 마을에 뭐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마을 진입하기’를 조심스레 시도하고 있는 새내기 주민에 이르기까지 그 연령과 세대가 여러 층으로 상당히 두껍다. 둘째, 어린이집으로 마을살이를 시작한 주민들과 제법 큰 아이들을 방과후교실에 맡기려고 커뮤니티에 접속한 주민들, 성미산학교에 보내려고 먼 곳에서 막 이사 온 주민들, 지역에서 산지는 꽤 오래 되었지만 최근 생협을 통해 커뮤니티를 알게 된 주민들 ... 등등 커뮤니티에 접속한 지점과 이유들이 다양하다. 이는 마을의 규모가 커지고 활동의 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는 계기와 지점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각자의 조건에 따라 커뮤니티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역시 다양하다. 상근 실무자로서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생협에서 먹거리를 가끔 구입하는 정도로만 커뮤니티와 인연을 맺는 주민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의 무척 다양한 참여 수준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이야기의 방향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마을에 대한 통일적인 상이 있을까? 아니, 통일적인 상이 가능하기는 한결까? 모두가 공감하는 마을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의문에 대한 결론을 보류하고 내가 생각하는 마을, 그동안 10여년 동안 마을살이를 해온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 마을’에 대한 상을 이야기해 보련다. 단, 10여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피하고, 그 역사의 의미를 몇 가지의 언어로 집약하는 방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의 시각을 넘어 마을 전체 차원의 의미화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즉 마을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대상화해서 바라볼 때, 그때 떠오르는 의미를 더듬어 보려고 한다.

첫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계기와 그것이 10여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일까?, 둘째, 지금까지 우리 마을의 현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과제를 설정해 본다. 다만, 그 해결의 방도는 우리 모두의 몫으로 돌리면서 이후 토론의 방향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II. 성미산 마을의 형성

국가와 시장이 못해주면 우리가 직접 한다

우리 마을의 시작은 물론 우리어린이집의 설립⁴⁾이라고 해야겠다. 물론 당시 이 동네에 마을을 만들어보겠다고 생각한 이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마을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으리라. 단지 아이를 어찌 키워야할지 막막해하던 젊은 부부들이 같이 키워보자고 모여 시작된 것이다. 대체로 30대 초 중반의 맞벌이들로 아이를 이제 막 낳았거나, 곧 태어날 아이들의 육아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는 서너 살 박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품에서 내려놓고 키워야할 상황에 이른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당시 주택가 주변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었으니, 그곳에 아이를 맡기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럴 수 없었다. 믿을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유치원들은 하나같이 획일적이고 인지도 육 편향의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이집 역시 별반 차이가 없었다. 심지어 당시 모일간지에 약을 먹여 낮잠을 재우는 유치원에 대한 고발 기사가 실려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던 터라,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었고, 비용이나 시설 등에서 안

4) 1994년 9월 3일 연남동에서 개원하였고, 이듬해 성산동 이움아파트 앞의 자리로 이사하여 근 10년을 지내다 최근 임시터전을 거쳐 영구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라고 한다. ‘역사적인 일’이다.

전하고 안심할 만하다는 국공립 육아시설은 거의 없었고, 있어도 경쟁이 심해 들어가기 어려웠다.

이들은 조금은 다른 육아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에서 보면 별다른 것이라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아이들이 도시이지만 가능한 한, 생태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관계맺기를 하고, 어른들과도 수평적인 감수성으로 평등한 관계맺기를 배우며 자라기를 바랐다. “아이들은 놀면서 크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들의 어린시절이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실행에 옮길만한 육아기관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세팅되어 돌아가는, 상급 학교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같았다. 일찌감치 한글 떼고, 셈본 익히면서 교사들의 훈육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다 집으로 실어 날라지는 일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육아의 문제를 가진 젊은 부부들은 드디어 자기네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가도 시장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직접 해결해본다’고 나선 것이다.

성공은 새로운 시도를 부추긴다

20여 가구의 의기투합은 충분히 강렬했으나, 그 실행은 마음처럼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술한 난관을 장애물넘기 게임이라도 하듯 의연하게 넘어서고, 지난한 의사결정과정의 고통(?)을 소통의 즐거움으로 우려낼 줄 알았던 이들 젊은 부부들은, 성공적으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지켜내고, 전국 각처에서 어린이집 설립의 붐을 일으키고, 설립에 대한 자신감과 모델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⁵⁾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은 이들에게 참으로 새롭고도 신나는 경험이었다. 마치 대학시절 동아리활동이라고 하듯이 즐거워하였다. 무언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의 창의적 기쁨은 짜릿하기조차 한 것이었다. 이 기쁨과 협동의 가능성에 대한 자각은 이후 여러 사고치기(?)의 원동력이 된다.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방과후 교실을 만들었다. 방과후 교실 다니는 아이들이 3~4학년을 넘어서면서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분명하게 드러내자, 보육공간으로의 한계를 가지게 되면서 ‘꿈터’라는 방과후 문화센터⁶⁾를 설립한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분야에서의 욕구발전과 해결의 경험은 이윽고 대안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은 마을학교로서의 성미산학교의 정착과 마을교육과정의 시스템⁷⁾ 마련이라는 과제를 제안하기에 이르고 있다.

교육분야는 마을 성립의 시초가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마을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 못지않은 사업영역이 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마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이다 방과후교실이다 묶어두고 연대하여 키워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동선이 커지고 부모와 교사들의 담합과 감시망⁸⁾이 따르지 못하게 된다. 그때, ‘그럼 마을의 교육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물론 공동육아의 생태적 교육관에 따르자면 마을이 중요한 교육의 장⁹⁾인 것은 말한 것도 없지만 말이다.

사회적 기업의 마을 버전 - ‘마을기업’의 탄생

마을에 자연스레 다가설 수 있고 마을주민들이 손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 5) 지금은 전국에 40여개의 어린이집과 20여개의 방과후교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마을에서는 이듬해 1995년 ?월 우리 어린이집 대기자부모들이 ‘날아는 어린이집’을 설립하였고, 역시 대기자 부모들이 대기 기간을 기다리다 못해 참나무 어린이 집을 설립하였다.
- 6) 특히 남자 큰 아이들의 몸 활동에 대한 욕구를 태권과 축구로 해결하면서 직접적인 꿈터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의 경우 역시 예술 활동 등 다양한 관심을 보이면서 ‘보육형’ 방과후교실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꿈터는 이런 점에서 방과후 시설이면서, ‘지역개방형’이며 ‘프로그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7) 마을교육 시스템이란 ① 지역방과후 교육 시스템과 ② 성년식을 정점으로 하는 통과 의례 시스템이 그것이다.
- 8) 컴퓨터 게임 규칙의 담합을 대표적으로 용돈 등등 생활의 상당부분을 관리하는 담합구조가 가동되었으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담합 통제망의 효력은 금방 무력화(?)된다.
- 9) 나들이, 먼나들이, 매년 어린이날에 성서초등학교에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전래놀이마당 등등. 특히 성미산 나들이는 마을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유기농 먹거리’ 공동구매 사업을 떠올리게 된다. 마포두레생협이 그것이다. 생협의 시도와 성공은 성미산 커뮤니티 형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동육아어린이집 조합원 몇 십 가구라는 소수의 특정한 필요를 매개로한 집단이 아니라, 먹거리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적인 욕구를 내걸었으며 누구에게나 가입이 열려져있는 주민조직이라는 점이다. 이는 성미산 커뮤니티가 특정한 소수자 그룹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 실제로 생협 설립 직후 시작된 성미산지키기운동에서 생협은 주요한 조직적 구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승리 이후 마을 확산에 주요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이는 성미산 이후 생협조합원 가입율의 추이를 보면 분명해 진다¹⁰⁾

생협의 성공은 그 사업방식의 확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협동조합형 사업이 그것이다. 관심있는 다수가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출자해 사업밀착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운영자를 뽑고, 그리고 사업의 주된 이용자가 되니 소유와 이용과 운영을 함께하는 것이다. 어쩌면 요즘 회자되는 사회적기업의 마을 버전, 즉 ‘마을기업’의 전형적인 모델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생협의 성공과 사업방식은 동네부역으로 이어지고, 떡두레, 작은나무(그늘나무)로 이어지게 된다. 이들 사업체 역시 다소의 차이¹¹⁾는 있지만 대체로 생협에서 학습한 협동조합 방식으로 주민이 십시일반으로 출자한 종자돈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생협의 성공 이후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한 마을기업의 대표선수는 뭐라해도 성미산차병원이다. 성미산 정상 철야천막농성 당시 불침번을 서던 아빠들의 속닥거림으로 차병원의 설립계획이 수립되고, 성미산 승리 이후 실제 마을주민들의 1억여 원에 달하는 거금의 출자로 설립되었다. 역시 10만원 이상의 소액에서부터 몇백 만원의 고액출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자로 사업자금이 모였다. 마을기업은 우선 마을고용을 낳는다. 마을기업의 운영자¹²⁾는 모두 마을의 주민이다.

성미산학교의 설립

성미산학교의 설립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한 이래,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과후 교실, 꿈터를 설립해 왔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에 상응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때 논의하다가 성미산투쟁을 계기로 보류¹³⁾한 바 있었던 대안학교의 설립 논의는 성미산투쟁이 한창이던 2003년초 성미산 산상철야농성에서 다시 재개되었다¹⁴⁾.

성미산학교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이어져온 대안교육의 실험을 초등-중등에 까지 계속 일관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취학 전’에서부터 초중고 과정까지 교육적으로 일관된¹⁵⁾ 원칙과 방침으로 아이를 돌보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로써 마을

10) 2000년 5월 설립 당시 100가구, 성미산 승리 직후 2003년 5월 기준 800가구, 현재 2,000가구. 당시는 매일 80가구 이상이 가입한 이른바 러쉬 현상을 보였다.

11) 생협은 소액/다수 출자방식(3만원 이상), 그늘나무는 다액/소수 출자방식(500만원, 8명). 그늘나무는 5인 동업방식, 떡두레는 2인 공동창업방식이다. 그늘나무는 운영자의 마을 기부로 성미산학교 교사들을 주축으로 하는 「작은학교만들기」라는 동아리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12) 생협이 관리 3, 매장 6, 물류 3 총 12명의 상근실무자가 활동하며, 차병원은 2명, 동네부역 4명, 작은나무 1명의 상근 운영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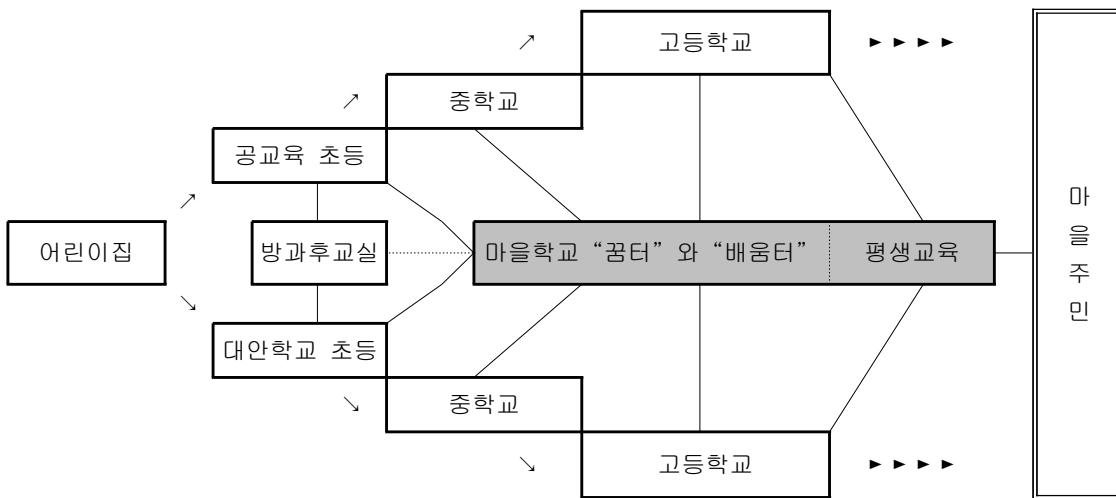
13) 성미산투쟁 직전인 2001년 봄~여름 기간 동안, 대안학교 설립에 관하여 마을에 프로젝트팀이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논의 결과 대안학교 설립의 품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마침 닦친 성미산투쟁의 이슈를 이유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다. 대신 방과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교육적 콘텐츠를 축적해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 설립을 시도하기로 하는 '우회전략'을 위안으로 삼기로 결의하고 해산하였다. 우회의 산물이 바로 2001년 10월에 설립된 지금의 『꿈터』이다.

14) 이 때, 우리어린이집의 조합원 다섯 가구가 아이들의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대안초등학교를 찾아 마을의 뜰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아이들 때문에 이 마을에 이사 와서 이제 자리잡고 살만한데, 또 아이들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니 ... 이참에 아예 대안학교를 만들자” 라는 논의가 계기가 되어, 성미산투쟁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던 2003년 봄에 대안학교에 관한 마을워크숍이 열린다.

15) 공동육아와 성미산학교의 학교이념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체로 최근의 대안학교의 교육이념의 범주 내에 함께 든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은 대학교육 이전까지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대안교육과 공교육의 이중적 교육시스템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운용해 갈 수 있는 토대를 가지게 된다.

[그림1] 마을의 교육시스템



또한 성미산학교는 마을학교를 지향한다. 마을학교란 교육활동이 학교 건물과 학교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한정되지 않고, 마을의 여러 공간이 교실이고 학습장이며, 마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활동이 학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마을의 주민이 교사 또는 멘토 등의 교육적 지원자로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지 교육적 자원을 널리 구한다는 취지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참뜻을 새기는 의미가 있다. 마을은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 그 속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있다. 즉 마을학교란 그러한 현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기’의 실감을 느끼고 ‘함께 살아가기’의 감수성과 소통방법을 배우며, 자연스레 자신의 존재를 관계망 속에서 드러내 보이며, 자신의 미래를 타진해 보면서 학습의 동기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마을의 세대 순환의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성미산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나뉠대로 격동의 20대를 보내고 마을로 귀환한다면¹⁶⁾, 그들에게 마을은 어떻게 다가올까? 교사들이 입가에 미소 지으며 하는 이야기가 있다. “ 아무개가 졸업한 후에 성미산학교의 교사가 된다면 ... ” 아마도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이 달라지리라.

마포연대와 마포FM

마포연대는 성미산승리 이후 그 성과를 발전시켜 가기 위한 의도적인 기획¹⁷⁾ 아래 설립되었다. 즉, 마포연대의 주요활동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로부터 구해낸 성미산을 제대로 된 생태림으로 가꾸어 가기 둘째, 언제 다시 재개발될지 모르는 한양대의 개발계획에 대한 상시적 대처, 셋째 구정 모니터링과 정책대안의 제시 등이다. 첫째, 둘째 목표가 성미산투쟁의 연장에서 설정된 목표라면 세번째는 다소 다른 맥락이다. 활동의 내용에서 보면, 일상적인 생활상의 필요에 대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구청이라는 정치적 실체에 대한 ‘견제’¹⁸⁾를 설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성미산 투쟁과정에서 구청이 보여준 이중적인¹⁹⁾ 그래서 더욱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행태를 보면서 주민들이 구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

16) 10대를 마을에서 보낸 아이들은 어찌면 더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마을은 알피니스트의 ‘베이스캠프’처럼 언제라도 돌아가면 따뜻한 추억의 공간과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주는 그러한 곳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마을이고 고향일터!
 17) 성미산 승리 이후 생겨난 많은 사업들이 생활상의 필요나 욕구에 대응한 것에 비해, 목적의식적인 활동방향이 있었다.
 18) 토크빌처럼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를 ‘시민적 결사’와 ‘정치적 결사’로 구분할 때, 후자와 가까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생협이 ‘시민적 결사’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할 때, 성미산투쟁을 ‘정치적 결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과 관련 있다.

요성에 대한 학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정 일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활동의 대상 역시 커뮤니티에 한정하지 않고, 최소한 지역사회로 잡게 된다. 즉, 마포연대의 기획은 커뮤니티가 지역사회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 교두보의 역할, 또한 일상의 생활적 요구를 정치적·제도적 요구로 전환시켜 내는 고리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었다.²⁰⁾

한편 마포FM은 비교적 최근(2005년 5월 개국)에 설립되었지만, 마포연대와 유사한 과제인식에 기초한 기획이라 볼 수 있다. 방송국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논의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공론화 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결혼가정의 아이들, 동성애자 등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도구였다. 더욱이 방송 제작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른바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를 실현함으로써 미디어시대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유(專有)해내는 계기가 된다.²¹⁾

지금까지는 방송국으로서 필요한 제작과 운영의 안정성에 치중하여 왔고, 또한 그 점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면, 향후에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그로써 얻어질 커뮤니티의 공론의 장²²⁾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 가야할 것이다.

마을축제와 주민동아리 문화

마을축제의 기원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매년 어린이날 마다 성서초등학교 마당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은 물론이고 동네아이들을 불러모아 진행한 전래놀이 한마당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축제의 꼴을 갖춘 시초는 성미산지기운동 당시, 성미산 위²³⁾에서 대단히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열린 ‘숲속음악회’와 그 이듬해 열린 ‘동네야 놀자’²⁴⁾라는 슬로건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전래놀이로 보면 12년이 되었고, 숲속음악회로 보면 7년이 된 셈이다. 올해 마을축제를 제7회 성미산마을축제로 명명한 걸 보면, 축제의 모양을 제대로 갖춘 성미산 숲속음악회를 그 기원으로 두는가 보다. 하지만 우리 마을축제의 정신과 컨셉의 측면에서 보면, 그 기원을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전래놀이한마당에 두는 것이 더욱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마을축제를 7년째 해오면서 성격의 변화가 있었으나, 올해의 축제는 성미산커뮤니티의 주최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광범하게 참여한 축제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최는 커뮤니티의 문화적 조직적 역량에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지만, 지역의 많은 주민이 즐겁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성미산 커뮤니티의 지역사회로의 ‘결합 및 확산’이라는 과제의 성공 가능성을 본 것이다.

한편 이번 축제의 커다란 성과 중의 하나는 역시 주민동아리이다. 축제의 메인을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

19)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듯 했으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였다), 실질적으로는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숨기고 있었다. 나중에 투쟁이 정점에서 다다르자, 공개적으로 그 의도를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개발을 주도하였다.

20) 이 점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기대에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거의 활동조차 없다시피 하다. 이는 시민적 결사와 정치적 결사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 어쩌면 이 교두보의 역할은 지금 『사람과 마을』로 이관되었는지도 모른다.

21) 미디어시대의 시민참여를 통해 미디어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사실 거대자본에 장악되어 있는 미디어시대의 현실을 가로지를 수 있는 대안적인 시도이다.

22) 1Kw의 소출력으로 지역사회의 범위에만 송출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라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인가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일 것이다.

23) 성미산 승리 이후 숲속음악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주민 내부에 찬반 양론이 있었다. 즉 숲 속에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모이고, 커다란 기계음을 몇 시간 동안 트는 것은 성미산에 사는 생물들에게 좋지 않다는 생태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하는 의견과, 도시 속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1년에 한번 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무방하다는 의견이 맞선 것이다. 게시판 토론에 이어 공개적인 주민토론을 벌이기까지 하였으나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아 성미산 개최가 유보되었다. 대신 거리공연이 추천되었으나 진행되지는 못했다. 지난 6월 마을축제 ‘차없는 거리’의 공연은 3년 만에 거리공연의 꿈이 이루어진 셈이다.

24) ‘숲속음악회’는 동네의 많은 주민이 대규모로 참여한 공연 형식이었으며, ‘동네야 놀자’는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기획하였다.

적인 동아리가 담당했다는 것이고, 축제에 참여한 주민 관객들도 이를 가장 훌륭하고 멋진 프로그램으로 즐기고 격려했다는 점이다. 주민 문화예술동아리는 지역의 문화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릇이며, 커뮤니티의 문화적 소통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매개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동아리를 통하여 지역의 일반 주민들이 커뮤니티에 적극적²⁵⁾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성미산마을의 공동체성 성장에 핵심적인 고리가 된다.

그동안 마을에서 여러 동아리가 생기고 또 없어지고 했다²⁶⁾. 하지만 최근의 동아리 현상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즉, 커뮤니티 내부라는 틀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열린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쉽게 얘기해서 공연팀들도 지역의 여러 주민들 앞에서 환호를 받으면 공연을 하게 되니, 무척 신이 나고 힘을 받은 게 역력하다. 즉 동력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올해의 마을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다양한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동아리의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성미산지킴이들의 환경 활동

성미산 커뮤니티의 환경 관련 활동은 교육분야와 함께 대단히 전통적인²⁷⁾ 분야이고 실로 모범적이다. 성미산 승리 이후 지켜낸 성미산을 제대로 가꾸자는 취지에서 매년 식목행사를 벌이고, 성미산 셋길막기를 해왔다²⁸⁾. ‘멋진지렁이’는 성미산 커뮤니티의 환경활동을 상징하는 중요한 동아리이다. 생협이 조합원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렁이 분양사업, 한평공원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평공원 만들기는 마을의 짜투리 공간을 찾아내 공원으로 개조하여 인근의 주민들이 쉬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골목길 평상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영화를 상영하여 주민들과 색다른 문화적 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카 셰어링 사업을 잉태시키기도 하였다²⁹⁾. 이는 ‘골목길 되찾기’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주민의 소통공간이자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인 골목길을 자가용차들의 주차장으로 빼앗긴 지 오래이다. 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매년 축제 때마다 골목길에서 ‘놀이한마당’을 열고, ‘골목길놀이 워크샵’을 통해 지도자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물론 운행차량 자체를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환경경적인 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동안 마을에서 꾸준히 벌여온 ‘자전거타기 캠페인’³⁰⁾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커뮤니티 베이스의 환경운동의 시도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마을 전체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활성화하는 거시적인 시도는 논의하는 정도를 넘고 있지 못한데, 이는 우리마을 차원의 자원으로 시도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지역사회와 마포구청 및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사회 복지활동

성미산 승리 이후 빼놓은 수 없는 활동으로 바로 지역사회의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활동 주체는 마포희망나눔단이라는 단체로서 마포연대 내의 활동단위로 출발하여 현재는 독립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다수 회원으로 참여하여 매월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5) 주민의 참여를 소비참여, 생산참여, 기획참여로 구분한다면 때, 소비참여 역시 중요한 참여입에 분명하나, 생산참여라는 적극적인 참여는 커뮤니티의 강화에 핵심적인 계기가 된다.

26) 도토리 방과후의 교사 및 부모들의 기획과 참여로 여러 형태의 동아리와 문화적 실험이 시도되었다. 아이와 어른 합동 민요 동아리 『지리산』, 풍물패 『뚝딱패』 등은 소멸되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구성된 성미산풍물패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27) 성미산지킴이운동의 에너지는 공동육아의 환경·생태적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28) 물론 부족하다. 산위에서 벌어지는 매일 새벽 체조동아리의 기계음소리, 체육시설의 증설, 산 위에서 고기구워먹기, 자꾸 늘어난 가는 텃밭 등등 성미산을 제대로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과제가 많다. 또한 성미산 개발의 위협은 상존하는 상태로 언제 개발계획이 재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9) 2006년 마을주민 5명이 독일 보봉지역을 답사하고 돌아와서, 우리마을에도 ‘차 없이 사는 문화’를 심어보자는 취지로 올려 립에 준비되어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중이다.

30) 매년 축제때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에서 유모차와 자전거가 함께 하는 행진을 벌여왔다. 그리고 자전거 동아리가 있어서 격주 토요일마다 강변의 자전거도를 일주하고, 꿈터의 택견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1~2회 자전거로 먼나들이(250km 주행) 행사를 한다.

예로써 노인 건강검진실시³¹⁾, 겨울철 김장나누어드리기³²⁾, 설-추석 명절음식나누기, 소년소녀가장 챙기기³³⁾, 집수리 지원 등등이 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출발 자체가 커뮤니티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생협과 마포장애인자활센터가 지역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복지 활동이 가속화 될 예정이다.

Ⅲ. 성미산 마을의 동력학

지금까지 살핀 마을의 다양하고도 활동적인 확장은 결정적으로 성미산투쟁을 계기로 한다. 20여 가구의 이주민들의 작은 시도가 마을 차원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성미산투쟁을 통하면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미산투쟁은 초기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한 이주민들의 성공적인 협동의 실천이 바탕이 되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성미산 승리 이후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확장되는 커뮤니티의 활동은 최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으며, 돌파를 위한 나름의 모색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미산마을의 역사를, 그것을 가능케한 원동력이 무엇이였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펴본다.

1. 성미산투쟁과 ‘빅뱅’

성미산 위에서 동네와 만나다

성미산투쟁의 시작은 성미산개발³⁴⁾ 소식을 접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교사들의 반대로 시작되었다. 물론 커뮤니티의 사람들도 뭔가 아닌데 하고는 있었지만 당장 뭘 어찌해야 하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교사들이 “성미산은 아이들이 매일 해만 뜨면 나들이 가는 곳이며, 큰 아이들도 낮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 다니는 동산이다.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비밀장소를 만들어 놓고, 곳곳마다 별칭³⁵⁾을 붙혀 부르는 등 그 아이들의 추억과 꿈이 담긴 곳이다.” 그래서 “절대 이 산은 헐리면 안된다. 공동육아의 교육이념이 터하고 있는 마을의 중요한 장소로서 여느 산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들은 바로 행동에 옮기기로 하고 개발반대운동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성미산지킴이운동을 통하여 초기 커뮤니티의 성원들은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된다. 이른바 ‘산에서 동네를 만난 것이다.’ 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매일 새벽 무렵부터 어김없이 오르던 마을의 어른들이 계셨던 것이다. 6,70대인 노인들과 4,50대 아주머니들에게 성미산은 중요한 건강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새벽이면 매일 산에서 에어로빅 체조를 하는 동아리도 있었다. 산 중턱에는 몇 개 안되지만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공동육아 부모들에게 성미산은 낮은 산이었다. 나조차도 성미산 개발반대가 아니었으면 몇 번 올라가 보지도 않았던 산이었으니 말이다. 다른 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 같다. 그러나 성미산 커뮤니티 사람들이 (그 당시로는 공동육아 조합원 부모들) 성미산 개발반대

31) 지역의 뜻있는 의료인의 모임인 ‘의료인 네트워크’에서 진료소 및 방문 진료를 정기적으로 한다.

32) 신성한 커뮤니티의 주민들이 성미산학교 다목적실에 모여 김장을 함께 담근다. 이때 참여주민이 먹을 양의 2배를 담가 절반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한다. 비용은 물론 참여한 주민이 2배로 낸다.

33) 최근 『춤의문』의 문이 한 아이를 챙기고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4) 성미산 정상에 배수지를 건설한다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배수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양대학교 재단이 배수지 공사로 임야가 훼손되길 기다려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35) 그늘나무, 비둘기집 등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름을 지어 부르곤 했다.

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을 공식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나?”하며 한편으론 자포자기의 심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젊고 열성적인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한다는 눈치를 보였다. 우리 역시 서울시의 공사강행 시도에 대항하는데, 지역 어르신들의 기대와 후원은 절대적인 지원군이였다. 특히 대립이 정점에 달했을 때, 서울시 측의 마타도어에 대한 지역 어르신들의 엄호³⁶⁾는 대단히 효과적이였다. 이렇게 커뮤니티 사람들, 아니 공동육아 식구들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부모들)과 지역 어르신들과의 극적인 만남은 산에서 이루어졌다.

빅뱅 에너지의 응축

2년여에 걸친 기나긴 투쟁의 경험과 결국 승리한 협동의 기억은 성미산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이른바 마을의 ‘빅뱅’이 생겼다. 빅뱅의 징후는 투쟁의 말기인 3.13대첩과 경성고등학교 공청회에서 감지되었다.

3.13대첩이란 2005년 성미산투쟁을 시작한지 2년째 되던 해, 3월 13일 새벽 6시, 공사업체가 동원한 100여명의 용역깡패들과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12시간에 걸친 사투를 두고 주민들이 부르는 말이다. 그때 많은 주민들이 깡패들의 발길에 채이고 얻어맞아 길거리에 던져지고, 구급차에 실려 가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평소 알고 있던 아저씨 아줌마가 덩치 큰 깡패에게 끌려가고 발길질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울고, 몇몇 사내아이들은 ‘왜 때리냐’며 달려들기도 하였다. 이 광경을 지켜 본 지역의 주민들, 특히 상점주인들과 노인과 아주머니들은 함께 싸우지는 못해도 서울시가 너무한다는 반감을 갖기에 충분했다.

결국 이 3.13대첩이 언론에 알려지고³⁷⁾, 서울시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대로 공청회를 약속하게 된다. 공청회에는 이 동네 유사 이래 전례 없는 인파가 몰렸다³⁸⁾. 공청회의 분위기는 주민측 발표 내용의 압도적인 우세 속에서 이미 그 성과가 판가름 나고도 남음이 있었다. 3.13대첩과 연이은 공청회는 마을 주민의 표면적인³⁹⁾ 에너지가 급격히 커뮤니티 쪽으로 기울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공청회 직후 구청 측이 일방적으로⁴⁰⁾ 시행한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즉, 구청의 기대와는 달리 성미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⁴¹⁾로 조사되었던 것이다. 주민여론조사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자 구청은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배수지공사 보류⁴²⁾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빅뱅의 에너지는 이렇게 응축되고 있었던 것이다.

빅뱅과 성미산마을의 형성

2년여의 꾸준한 투쟁과 3.13대첩 → 5.00공청회 →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지는 막바지의 급박한 흐름

36) 당시 하청공사업체 직원들을 통해 퍼뜨린 마타도어는, 개발반대 시위에 참여한 우리를 보고 “다른 지역에서 원정 온 데모꾼들이다” “이 동네에 살지도 않는다” 등등이였다. 그러나 시위현장에서 이들의 마타도어에 대하여 60, 70대의 허연 어르신들이 그 앞에서 대놓고 “이 양반은 우리 뒷집 사는 아무개 아빠여!, 이 동네에 산 지가 벌써 5년째여!, 이 엄마는 어땡고?”라고 역성을 들어주니, 그들의 마타도어는 오히려 머쓱해져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통쾌하고 가슴 뭉클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

37) 이튿날 3월 14일 새벽 마을주민 8명 (한술아빠 신상열, 상호엄마 구교선, 창희엄마 이경란, 재현엄마 짱아 김효진, 서경엄마 살구 손정현, 빨강머리 전민성 그리고 아이들인 당시 5학년의 주재현과 4학년의 박상호)은 이명박 시장의 출근길을 따라 가며 기다렸다가 전철 안에서 기습적인 면담을 시도하여, 성미산 배수지 공사 강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장면이 3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사진과 함께 게재되었었다.

38) 물론 양측이 세를 과시하려고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한 탓도 있지만, 그 역시 주민들의 관심의 정도를 추측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39) 성미산 개발 찬반에 대한 공개적인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그 흐름이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40) 당초에는 여론조사를 상호 합의 하에 실시기로 하였으나, 공청회의 열세를 뒤엎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구청 측은 상의는 물론, 일절 통보도 없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조사기관과 설문내용으로 전격 실시했다.

41) 응답자의 약 93%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계됨.

42)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 의회보고에서 ‘무기한 공사보류’ 라고 답을 했다. 일반적으로 보류란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속에서 성미산의 에너지는 꺾꺾 응축되고 있었다. 응축된 에너지는 결국 성미산 아래 우리들 삶의 일상에서 분출하고 만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생협의 활성화이다. 매일 80가구가 신규 출자했다고 하다. 이는 평소 한달 가입 실적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밖에 위에서 열거한 각 분야에 걸친 새로운 시도가 거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즉,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방과후교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활동과 사업이 성미산 승리 이후의 결실인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대단한 에너지의 발현이다.

빅뱅의 의미는 특정한 필요와 관심으로 모인 소수의 집단이 지역사회의 일상의 관계로 녹아들고, 다양한 방법과 계기로 관계맺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수의 이주민 집단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사회의 여러 주민들과 다양한 소통과 관계맺기를 하는 것, 이를 거꾸로 보자면 지역사회가 이 커뮤니티에 공감을 갖고 이들이 벌여왔거나 벌이는 여러 활동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마을만들기’라 하던가? 그러나 커뮤니티의 주체들에게 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거나 의도된 것이 아니니, 마을만들기 보다는 ‘마을의 형성’이라고 해두는 게 나을 지도 모른다.

이로써 공동육아조합원이라는 소수의 이주민 집단은 성미산마을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눈에 띄는 커뮤니티의 실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실체라는 의미는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첫째 마포구청이 성미산 커뮤니티의 존재를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성미산 커뮤니티에 접속을 시도한다. 예를들면 생협의 가입이 대표적이고, 동네부엌, 꿈터 등의 이용이 그 예이다. 이는 성미산지킴이들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먹거리, 아이들 교육 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의미한다.

2. 협동의 위력

성미산투쟁을 전후로 한 마을의 형성과정을 들여다보면, 일관되게 흐르는 힘이 있다. 바로 협동의 힘이다. 다만 협동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달라지는 계기를 중심으로 보면, 15년에 가까운 마을의 역사를 크게 3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3시기별로 마을형성의 원동력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살펴본다.

(1) 초시시대의 협동

필요에서 출발한 협동의 경험

마을의 시초가 된 어린이집, 그리고 그 이후 마을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과 사업은 어느 것 하나 필요에 의한 것 아닌 것이 없다. 도시에서 아이를 키우며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것이다. 물론 마을에서 하지 않아도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서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국가나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기에, 그들은 그 만족을 제공할 수 없기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성미산 마을 사람들만 유독 국가와 시장 시스템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일까? 대부분 불만은 비슷하겠지만, 성미산마을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시도’했고, ‘함께’ 풀어가고자 고민했고 이를 실천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결국 실천으로 이어지고 성공으로 귀결될 수 있게 한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협동, 협동의 힘이다.

어린이집의 설립 당시 육아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를 공감한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이 의기투합해서 여러 난관을 함께 넘으며 결국 설립을 해내고,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첫 사업’의 성공은 이후 모든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협동

하는 노하우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함께’란 단순히 ‘산술적’으로 혼자 보다 낫다, 수월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혼자 하기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⁴³⁾

예로써 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을 처음 설계한다고 해보자. 모든 부모마다 그 교육관이 다 다르며, 누구나 자기 아이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지도 모른다. 더욱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으니 오죽하랴. 더욱이 아이들의 문제는 성격상 좀처럼 절충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문제를 의논하다 보면, 그 부모의 역사와 인생이 다 드러난다. 실제로 작은 운영상의 문제 하나를 결정하려 해도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이 오기까지 토론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고 며칠을 두고 더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함께 만들어 본 협동의 경험은 지난한 소통과 공감의 고통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결국 성공에 도달했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파국으로 빠지지 않게 이끌어온 상호 ‘배려와 소통’의 성취이며, 동시에 그 성취에 대한 감동적인 보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협동에 대한 공감과 그 위력에 대한 자신감은 각별한 것일 수밖에 없고, 마을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초기세대 협동의 동력과 동질감

한편, 1994년 당시 우리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이후 이 마을의 시니어로 살아온 이들의 이력을 살피는 것은 초기 협동의 성취와 이후 마을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80년대 초반에 20대를 시작한 이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대학교에서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몸으로 겪은 세대로서 소위 386세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들은 대학에서 민주주의와 비판적 사회의식을 갖게 되고, 학회와 각종 동아리에서 협동과 연대의 문화와 감수성을 익혔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자립잡기에 여념이 없을 시기⁴⁴⁾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현실의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이들이 어린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용했을 몇 가지 특징을 간단히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이념이 아닌 현실의 절박한 ‘자기필요’의 의해 움직였다. 결혼과 취직 이후, 이들 젊은 부부들이 당면한 인생 최대 프로젝트가 ‘아이들 키우기’였음은 의의가 없을 것이다.

둘째, 자기필요를 해결하는데 있어 이들이 가진 민주주의 의식과 비판적 사회의식은 새로운 문제해결의 길⁴⁵⁾을 요구했다. 바로 그 길에 대한 비전의 공유가 이들에게는 가능했던 것이다⁴⁶⁾.

셋째, 이들은 협동을 즐겼다. 이들은 학창시절로 되돌아가, 마치 학회나 동아리활동이라도 하는 듯한 착각(?) 속에 즐거움을 느끼며 함께 했다. 사회로 진출한 이후로 경쟁적으로 반복되는 팍팍한 일상에서 퇴근하여,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다 라는 협동의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다. 더우기 자신들의 희망인 ‘새끼’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었음에랴.

넷째, 그들은 일 속에서 학창시절에 익숙했던 ‘자율과 협동’의 추억을 반추해내고, 그러한 방식의 효과를

43) 공동체운동을 낭만적으로만 볼 일 아니다. 그만한 나름의 난관을 겪어낸다. 그런데 그래서 공동체운동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난관을 겪어내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의 장점을 잉태하고 상호 경험하는 과정이다.

44) 연령으로는 30대 초반이고, 사회생활 연차는 군복무나 여타 이유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여성은 7년, 남성은 5년 내 외였다.

45) 바로 국가에도 시장에도 의존하지 않는 제3의 ‘대안적인 길’을 의미하며, 그들은 이 길을 찾아 직접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이들은 20대 시절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세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경험을 가진 세대들이다. 이른바 386세대.

46) 이들은 일부 알음알음으로 모이기도 했고, 당시 한겨레신문에 공개모집 광고를 냈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공감하면서 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이렇듯 마을 초기 세대, 이른바 시니어들은 그들 나름의 기억과 경험의 공유가 가능한 토대가 있었으며, 이 토대를 확인하는 것 즉 서로의 동질감을 확인하는 것이 마을살이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⁴⁷⁾ 80년대 그들 학창시절의 문화와 감수성이 마을에서 새롭게 ‘삶의 버전’으로 재현⁴⁸⁾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성미산투쟁기의 협동 - 『생협』, 그리고 성미산투쟁

성미산투쟁의 과정에서 응축된 주민의 에너지가 성미산 승리 이후 마을의 빅뱅으로 분출되는 과정에 대하여 다소 세밀한 검토를 해보자. 성미산 승리 이후 분출된 에너지는, 성미산투쟁의 초기 주도세력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형성된 부모와 교사들의 에너지 그대로는 아니고, 학적으로 성분이 다른 새로운 (기운으로)로 변화되고 있었다. 이를 가치와 조직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자. 즉, 공동육아의 가치가 마을의 확산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조직의 수준과 운영원리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1] 마을 발전에 따른 가치의 전개와 조직원리의 변화

마을의 단계	가치의 전개	주요 가치	조직	기간	
1	이주민들의 정착기	가치의 도입	• 생태적 가치 • 공동체적 가치(협동) • 자율적 가치	공동육아어린이집	1994.5~2000.1
1-1	지역사회로의 모색기	가치의 연장	• 건강한 먹거리 나눔 • 지역사회로의 협동원리	생협-공동육아	2000.1~2001.8
2	성미산 투쟁기	가치의 집중과 응축	• 성미산지키기 - ‘생태적’ 가치 • 마을차원의 ‘자율과 협동’의 실천	생협-성지연	2001.8~2003.7
3	post 성미산기	가치의 다원적 확산	• 다양한 삶의 가치로 분화	다극화-각개약진	2003.7~2007.5

생협의 설립과 지역사회로 다가서기

우리어린이집에 이어 낳으는 어린이집이 설립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토토리과 풀잎새 방과후⁴⁹⁾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 지역 차원에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টে이 좋겠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유기농 먹거리를 공동구매하여 공동소비하는 네트워크인 생활협동조합⁵⁰⁾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물론 생협 설립 당시의 주된 가입자는 공동육아 조합원인 부모들과 교사였다.

조직적으로 보아 생협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조합원과 중복되어 있었다⁵¹⁾. 즉, 생협이 나름의 독립적인 조직적 기반을 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다만 여

47) 물론 이러한 이들의 세대적 특성은 이후 후배세대와의 관계에서는 다름, 경우에 따라서는 단절과 소통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그때에는 동질감의 역사에서 이질감의 역사로 전환되는 것이다.

48) 재현(representation)

49) 도토리가 98년, 풀잎새가 역시 이듬해인 99년 설립되었다.

50) 공동육아 조합원 중에 오랜 기간 직업적으로 생협 활동을 해온 주민의 도움으로 설립하게 된다. 그는 박홍섭으로 생협의 초대 이사장이 된다.

51) 그렇다고 생협이 각 개별 공동육아 조합의 상위조직은 아니다.

러 공동육아 조합원들이 상호 교류하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망이 비교적 가능해졌다는 점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협이 지향하는 가치는 공동육아의 가치인 생태가치, 공동체(협동)가치, 자율적 가치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이를 지역차원으로 연장⁵²⁾시키는 것이다. 즉, 생협은 자신의 특별한 이념적 가치를 내세웠다고보다는, 기존의 커뮤니티(공동육아)에서 공감해온 가치를 그대로 마을 차원으로 연장시켜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매개는 ‘먹거리’라고 하는 대중적인 요소를 포착했으며⁵³⁾, 사업의 방식 자체가 ‘공동구매-공동소비’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공동육아의 생태가치와 협동 및 자율의 가치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결국 생협의 설립은 공동육아의 가치를 마을에 내놓고, ‘육아가 아닌 먹거리’로 실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성미산투쟁기의 가치와 조직의 전환

그러다가 성미산투쟁의 단계로 접어들면, 생협은 설립 초기 공동육아 조합의 산술적 합에 지나지 않던 조직성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맞게 된다. 이른바 성미산투쟁의 주민조직 구성에 중심적인 간사단체 격의 역할을 맡게 된다. 그것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어린이집이 성미산투쟁의 조직적 구심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웠고, 교사들 역시 아이들과 지내면서, 더욱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다. 반면 생협은 활동 내용과 대상이 지역사회이고, 상근자⁵⁴⁾도 있었다. 더욱이 상근자는 어린이집의 초기설립 멤버로서 커뮤니티 조직의 현황과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한 조건 속에서 생협이 자연스레 투쟁의 조직적 구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지연⁵⁵⁾이라는 지역차원의 대중적인 투쟁조직이 만들어진다. 이 단체는 2년여의 투쟁을 이끌어가는 공식적인 주민 대표조직이 된다.

한편, 성미산투쟁의 국면에서 작용한 가치는 생태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성미산이 가지는 생태환경적 의미가 핵심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공동육아에서 비롯되고, 생협을 통해 ‘먹거리’라는 대중적 버전으로 지역사회로 연장 전개된 여러 가치들은, 성미산투쟁 국면에서 생태가치로 집중되게 된다. 하지만 성미산투쟁 그 자체가 마을주민의 협동적 실천, 그것도 직접행동을 수반하는 수준 높은 협동의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협동과 자율’이라는 공동육아의 나머지 가치들도 그대로, 아니 실천적으로 경험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성미산을 상징으로 하는 생태적 가치를 협동과 자율의 가치가 실천적으로 에워싸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미산 승리와 가치의 다원적 확산

성미산투쟁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한 생태적 가치와, 실천적으로 경험된 협동과 자율의 가치는 성미산 승리 이후 다양한 ‘삶의 가치’로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성미산투쟁 과정에서 확인한 마을의 가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 협동의 성공적 경험에 대한 자신감, 공동육아에서 지역사회로 확장된 관계망의 우호적 지지 등이 총체적으로 화학작용을 일으켜, 다양한 생활상의 필요와 욕구를 분출시키게 된다.(그림2 참조) 이는 공동육아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결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다원적 확산을 이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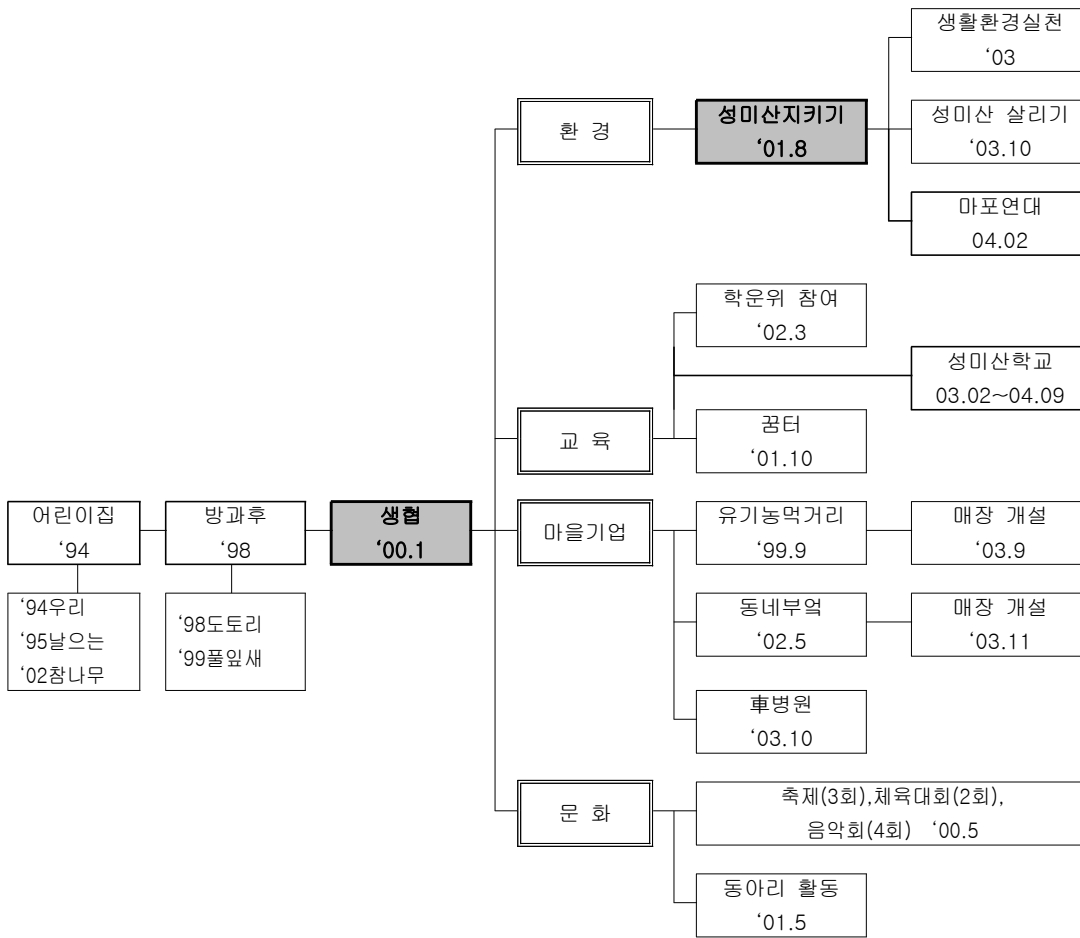
52) ‘연장’(延長)이라는 말은 내용상의 질적인(현격한) 변화 없이, 소규모 집단에서 지역차원의 대규모로 양적인 확장만을 했다는 의미이다.

53) 당시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이 인체에 해롭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지역에서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기에는 적합한 이슈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점심과 간식을 먹이는 것이 원칙이었고 ‘고추장’을 통하여 생협조직의 물류를 일부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생협을 통한 먹거리 사업이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54) 구교선 상무이사를 말한다. 그는 당시 유일한 상근 실무자로서 생협 설립을 실무적으로 책임졌으며, 동시에 성미산투쟁의 간사단체 격의 역할도 수행했어야 했다. 현실적으로 무리한 역할 담보였다. 그래서 구 상무는 원형탈모가 생기기도 했을 정도였다.

55) ‘성미산을지키는주민연대’는 생협을 필두로 어린이집 등 마을의 커뮤니티 기관을 망라하고, 지역사회의 교회, 성당, 사찰, 청년회, 산악회, 제초회 등의 동아리도 가입된 [커뮤니티+지역사회]형의 연대체였다.

[그림2] 성미산마을 여러 기관들의 발생과정



조직은 그야말로 다원화된 개별의 조직과 활동들이 각기 자신의 활동에 독립적으로 전념하면서 각개약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성미산투쟁 당시 생협이 담당했던 조직적 구심의 역할은 약화되고, 개별조직 및 활동들 간의 연계와 교류가 중심이 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양상이 강화된다. 결국 이는 새로운 소통의 문화를 요구하게 된다.

(3) post성미산 시기의 협동 - 『사람과 마을』, 그리고 2007마을축제

건교부 프로젝트의 ‘정시도착’

『사람과 마을』은 올 3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건교부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공모 프로젝트의 실행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립되었다. 작년 가을 조한혜정 교수⁵⁶⁾의 제안으로 건교부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과연 중앙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 마을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동안 마을의 대부분의 사업과 활동 그리고 행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십시일반⁵⁷⁾으로 해결해온 전통이 있고, 공연히 외부자금⁵⁸⁾ 받았다가 일만 번거로워지고 커뮤니티의 정체성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그래도 진행하자는 의견이 앞서 프로젝트는 준비되었다.

56) 성미산마을에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진 분이다. 멀게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설립 당시부터 『또문』 활동을 통하여 관심을 두었고, 성미산투쟁 당시에도 하자센터의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인연을 놓지 않고 있었고, 최근에는 성미산학교 교장으로 초대되어 약 2년 여간 마을학교로의 안착에 많은 힘을 쏟아주었다. 현재도 수시로 조언과 아이디어를 마을에 제공해준다. 그래서 성미산학교 학부모를 비롯해서 마을 커뮤니티의 많은 주민들이 조한 교수를 가깝게 여긴다.
 57)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자를 통해 종자돈을 마련했고, 운영비는 주민 회원의 회비나 활동 수익으로 충당해왔다. 한편 축제 등의 행사를 할 경우에도 마을의 각 기관들이 분담금을 나누어 내서 충당해왔다.
 58) 프로젝트 공고 당시에 지원기금의 규모가 5억 내외였으므로, 낮은 규모의 돈임에는 분명했다. 물론 이후 확인된 바로는 1억이 한도였다.

찬성의 의견은 현재 성미산투쟁 이후 다원적 각개약진에 따른 마을의 피로도⁵⁹⁾가 높다는 진단을 하면서, 공모의 선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모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자는 것이다. 즉, 마을의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사실 성미산투쟁 이후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내달려온 마을에 대하여 이런저런 걱정은 많이 오갔으나, 차분하게 거리를 두고 총체적으로 성찰해본 적은 없었던 것이다. 몇몇 주민들의 수고⁶⁰⁾와 마을회의⁶¹⁾를 통하여 공모신청서의 기획안을 점검하고 공유한 후 제출하게 된다.

구청에서 진행된 프리젠테이션에서 건교부 심사위원들의 호의적인 관심과 격려에 용기를 얻어, 당초의 계획대로 공모선정과 무관하게 성찰의 결과를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건교부로부터 ‘공모선정’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고, 한층 현실성 있고 실행력을 갖춘 실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해졌다. 지원금액 역시 1억원이라는 적당한(?)⁶²⁾ 규모로 결정되어, 당초에 염려했던 정체성을 훼손할 정도의 우려는 다소 덜게 되었다.

『사람과 마을』의 성격과 역할

『사람과 마을』 감당할 마을 내에서의 역할과 조직적 위상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개약진 해온 마을 내 다양한 활동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를 안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할의 핵심이다. 그리고 마을의 여러 사업과 활동을 몇 개의 분과⁶³⁾로 구분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사람과 마을』의 성격과 관련한 핵심적인 점은 독자적인 주민 조직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사업 및 신규활동이 필요한데 기존의 단체나 기관이 해내기에 벅겁거나 적당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그 활동이 자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 『사람과 마을』이 맡아서 운영한다. 이른바 신규사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적인 인적 역량의 투입이라기보다는 주로 정책적 지원, 가용자원의 연결, 재정적 안내 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과별로 마을내 각 기관의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곳에서 각자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행할 과제를 도출하는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따라서 실무자(상임이사 포함)들은 기존 기관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사업을 전체적인 시야에서 바라보고 필요한 지점을 포착해서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정책적 차원의 맥락에 집중하면서, networking & cordinating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각개약진 속에서 약화된 마을 내 소통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만드는 일로, 『사람과 마을』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사람과 마을』은 마을 일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마을의 대표기관⁶⁴⁾이 아니라, 소통과 연계를 매개하는 것이다.

현재 『사람과 마을』에서 준비(인큐베이팅) 중인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이 적지 않은 사업들이다. 특히 복지분과는 영유아보육 사업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 프로그램이 중점 사업인데, 이는 커뮤니티 내부보다는 외부에 대한 효과가 더 크다. 그리고 경제분과에서

59) 공동체가 일정 규모가 되면 나타나는 ‘공동체피로도’라고 할 수 있을까? 활동이 많고, 커뮤니티 주민들은 대개 몇 개의 활동이나 기관에 소속되게 되다 보니, 우선 회의가 많아진다. 따라서 당연 감당해야될 이슈들도 많아진다.

60) 용찬아빠의 끈질기고도 세심한 노력이 프로젝트의 준비과정을 가능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1) 마을회의는 성미산투쟁 당시 기습벌목 후 무기한 산상 철야농성을 결의한 마을회의 (2002. 1. 29) 이후, 만 5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었다 (2006. 12. ?).

62) 참으로 걱정한 규모로 ‘정시도착’한 지원금이었다. 돈의 규모가 우리가 헨들링하기에 부담스러운 정도로는 크지 않아 다행이고, 또한 1년 동안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었기 때문이다.

63) 『사람과 마을』 내에는 교육, 문화, 환경, 복지, 경제 등 총 5개의 사업분과가 있고, 연구와 총괄의 2개의 지원분과가 있다. 각 분과별로 (반상근 및 비상근) 상임이사과 (반)상근 실무자가 있다.

64) 『사람과 마을』의 이사회를 살펴보면, 마을 각 단위의 대표부로 ‘위임구성’된 것이 아니라, 추천 및 자발적인 참여로 ‘자임구성’되었다. 상임이사진은 주로 마을의 ‘시니어 세대’이면서, 각 분야에서 비교적 활동적인 역할을 했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준비하는 지역통화사업 역시 커뮤니티의 참여가 기본이지만, 지역사회의 참여가 사실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분과는 기존의 공동육아 방과후교실들이 겪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공동해결하려는 것으로, 결국에는 지역차원의 방과후 교육시스템의 구축으로 귀결되는 바, 이 역시 커뮤니티 내외부를 넘나드는 사업이다. 환경분과에서는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대안제시가 중요한 현안인데, 이는 지역사회 차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다. 문화분과의 경우 마을축제가 대표적인데, 이 역시 올해의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결합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사람과 마을』이 실행중인 사업들은 대체로 기존 활동의 확장이거나 도약을 위한 것들로서 모두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사람과 마을』은 커뮤니티의 내부에서의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야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들과도 관계맺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과거 7년전 생협이 처음 설립되면서 감당하게 되었던 역할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2007 마을축제와 ‘2차 빅뱅의 예감’

올 2007 마을축제는 예년과는 다소 다른 목표를 설정했으며, 그에 따른 성과를 거두었다. 목표는 ‘산에서 마을로’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듯이 성미산이라는 상징성을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동시에 성미산투쟁으로 형성된 다양한 마을의 활동을 갈무리하는 것이며, 성미산 이후 확장된 다원적 가치를 그 기초가 된 ‘성미산’으로 상징화해내는 것이었다.⁶⁵⁾ 실현 방법으로는 ‘차없는 거리광장’⁶⁶⁾과 ‘두달작전’⁶⁷⁾으로 불린 ‘주민동아리’였다.

차없는 거리광장은 바로 성미산의 상징성과 일상성이 만나는 지점, 즉 ‘일상적 생활공간 속의 성미산⁶⁸⁾’으로 기획된 것이었다. 또한 차없는 거리는 주민동원⁶⁹⁾이 아니라 자연스런 주민참여의 방법으로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즉, 생활의 일상적인 공간 속에 판을 깔면,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연장 속에서 자연스레 축제에 접속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축제의 형식에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⁷⁰⁾. 또한 이번 축제의 특이점은 준비조직의 성격이다. 예전과 달리 마을 각 기관의 파견대표⁷¹⁾로 준비위를 구성하지 않고, 축제준비에 관심 또는 역할이 있는 개인으로서의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준비팀의 자발성과 전문성⁷²⁾을 함께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실제 목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

이렇게 준비된 이번 축제에 참으로 많은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축제를 즐겼다. 축제 주관자가 막연히 구청이겠지 하는 주민도 있었지만 대체로는 ‘성미산지킴이들’이란 것을 눈치 채는 주민들이 많았다. 차없는 광장이 열리면서 제일 처음 아이들의 자전거가 제일 처음 가로지르고, 이어서 젊은 엄마아빠가 미는 유모차, 그 다음에 노인들이 차가 없어진 거리를 활보하였다.

65) 축제기획단은 이를 ‘상징성의 회복과 일상성의 확보’라 개념화하고, 축제의 기본 컨셉이자 목표로 삼았다.

66) ‘차없는 도로’의 기획은 단순히 교통을 통제하고 길에서 놀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빼앗기고 살았던, 그러나 빼앗긴지도 모르고, 당연하다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이를 재전유(再專有)라 하던가. 한번 전유의 경험은 그 자체로 혁명(?)적 사건이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사건으로서 말이다. 아마도 새로운 전유의 도발(?)이 가능해지리라.

67) 딱, 두달간 준비해서 공연을 했다.

68) 실제, 차없는 거리 구간은 마을의 중심도로로서, 'main street'라 부르는 생협 앞길이다.

69) 주민을 끌어 모으려 하기보다, 그들이 자연스레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생산참여나 기획참여의 경우에는 사전의 조직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70) 물론 경찰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경찰 측에서도 이번 축제를 긍정적인 평가하고 있어 희망적이다.

71) 축제 그 자체의 내용적인 관심이나 역할 보다는 기관의 형식적(행정적) 대표로서 연락사무 정도 밖에 할 수 없으니, 이들의 참여는 ‘조직동원’체제로 전략해 버리고, 몇몇 사람에게 기획집행의 업무가 몰리게 된다. 결국 한 쪽은 재미없어서, 한 쪽은 일이 몰려서 두두 축제가 힘들어진다.

72) 커뮤니티에는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는 직업적 또는 취미 수준을 넘어서는 준프로급의 주민들이 많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집행위는 내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질적인 상설화가 가능해진다.

이번 축제는 성미산 마을의 새로운 빅뱅을 예감케 한다. 2년여에 걸친 성미산투쟁 기간 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마을의 ‘1차 빅뱅’을 초래했지만, 이번에는 단 이들의 축제로 마을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과장인가? 아무튼, 이미 이루어지고 있을 ‘2차 빅뱅’은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과 마을』은 어떠한 활약을 할지 무척 궁금하다.

3. 마을신화와 자발성

3기의 시기에 걸쳐 꾸준히 축적되어온 협동의 경험, 협동의 성공적 경험은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공통된 믿음을 심어주었다. ‘마을에서 하는 일은 앞되는 일이 없다. 어쨌든 된다. 신기하다’ 등의 자신감과 여유가 그것인데, 그 바탕에는 ‘자발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자발성과 협동의 작동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1) 성공적인 경험의 위력 - ‘마을신화’

마을에는 신화가 있다. 단군신화도 아니고 태왕사신기도 아니고, 마을에 웬 신화냐 하겠지만 마을에는 신화가 있다. 마을에서 살다보면, 특히 무슨 일을 하거나 그 일이 난관에 부딪칠 때,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 마을 탄생의 신화는 아니지만, 10여년의 마을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된 주술과도 같은 믿음이니 ‘마을신화’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불패의 신화, 끝모를 낙관주의, 정시도착신화가 그것이다. 이들 세 신화는 사실 비슷하다. 어쩌면 하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즉 어떨 때는 불패의 신화로, 어떨 때는 낙관주의로, 그리고 정시도착 신화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불패의 신화

불패의 신화는 말 그대로 무슨 일을 하든 실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소 과장이라고 할 법하지만, 따져 보면 이 마을에서 시도해서 실패 본 일이 있나 싶다. 최소한 ‘거의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있다면 7, 8년 전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부지 매입에 나섰다가 최종 순간에 지주가 거부하여 매수에 실패하고, 그 후로 프로젝트가 수그러들어 이루지 못한 것 말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⁷³⁾.

‘끝모를’ 낙관주의 신화

낙관주의, 끝모를 낙관주의 신화는 무슨 일을 하건 그것이 실패할 거라는 염려가 없고,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그 어려움이 막상 현실로 닥쳐도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는 여유 있는 태도, 또는 믿음을 말한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별로 조바심을 내지 않게 되고, 실패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 적어 결과적으로 마음의 부담감을 덜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일을 실행하는 과정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성공할 가능성과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성공의 결과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일의 착수를 결정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모한’ 낙관주의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끝모를 낙관주의 신화는 실패에 대한 강박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초점이다. 즉 불패의 신화에서 비롯되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는 별도로 “실패하면 어때?”라는 실패에 대한 태도가 그 신화의

73) 최근 성미산학교 저학년 학부모 5가구가 공동주택을 짓기로 마을을 먹고 부지매입까지 마치고는, 설계에 한창이라고 하니 공동주택 역시 아주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

핵심이다. 이는 실제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이다. 실패하면 중도에 작파하면 될 일이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된다는 태도이다. 성패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일 중에 ‘안되면 안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낙관주의란 성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라기보다, 실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다.

한편, 우리 마을에는 “알면 못했지요”라는 말이 있다. 즉 시작한 일이 추진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난관이 생길 줄 ‘미리’ 알았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으니 시작했다는 얘기가기도 한데, 이점에서 낙관주의와 곧장 연결된다. 모든 일을 알아야 시작이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일의 경우는 미리 아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처음 가는 길은 그때그때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방도를 찾으며 헤쳐가는 것이다. 그러니 일의 시종을 미리 알거나 또는 그 어려움을 미리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한다면, 애초 시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낙관주의에 대한 지나친 합리화일까?

‘정시도착’ 신화

정시도착이라 함은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이 정시에 도착하여, 그 쓸모가 발휘되어 필요가 충족된다는 얘기다. 우리는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적시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사람⁷⁴⁾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난관을 극복하고 일을 성취해낸다는 믿음이다. 이는 한 두 번의 우연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다. 돌이켜 보면, 매사에 매번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마나 그랬다는 점에서 생긴 공동의 믿음이다. 이 현상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주 벌어지는 일이며, 그저 성공적인 결과를 두고 사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고하는 즉, 스스로 하는 긍정적인 합리화라고 접어버리기에 도된가 석연치 않다.

마을의 한 활동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주민들이 생활 속의 욕구로부터 시작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마을 일에 결합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기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실제 스스로 결합한다.” 즉, 정시도착 현상은 주민 자발성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결국 ‘불패’, ‘낙관주의’, ‘정시도착’이라는 신화는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가 발현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대의와 목표를 쫓아가기보다는 필요와 욕구에 의해 움직이고, 조직의 일사불란함보다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시작하고, 이를 ‘고운 눈길로 보아주는’, 그러다가 도움이라도 청하면, 기꺼이 한 손 없어주는, 그런 일하는 풍토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해석하면 어떨까?

(2) 신화의 구조 - ‘자발성’의 필요충분조건

이렇듯 마을신화가 마을의 자발성에 따른 현상이고, 마을을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동력 역시 자발성이라면, 그 자발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발성은 왜, 어떻게 생기고 또한 작동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필요와 집단적 협동이다. 필요가 자발성의 필요조건이라면, 협동은 충분조건이 된다.

필요조건

필요조건은 개인의 필요와 욕구이다. 물론 이 필요의 충족을 욕구하는 개인은 특별한 개인이 아니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보통의 개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의 주민들로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역시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편적 필요이다. 즉,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 건강한 먹거리, 일상의 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차원의 필요들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개인적 필요’라 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⁷⁵⁾에서 그 충족을 원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74) 이 사람은 마을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을 밖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75) 객관적으로는 보편적인 필요이자 요구이나, 개인의 필요로서 욕구되고 충족을 요구하는 ‘인식 및 실천의 수준’을 가리킨다. 즉, 협동적 실행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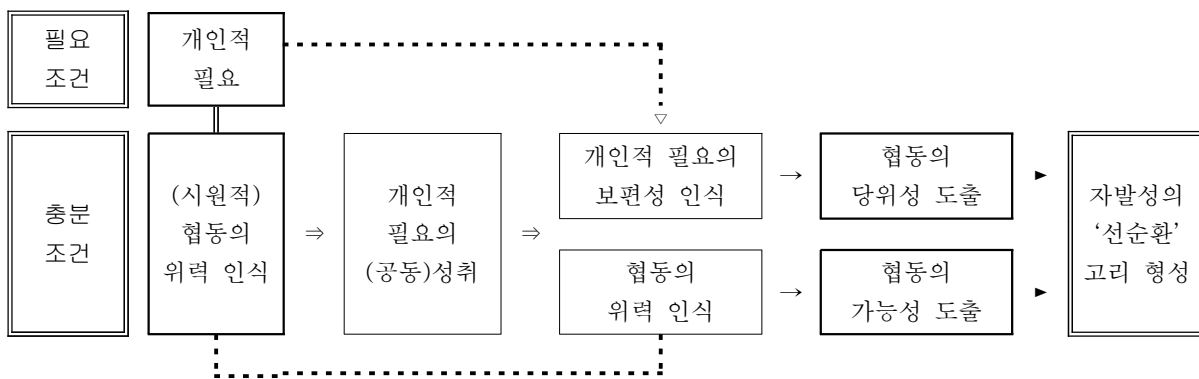
한편, 필요의 수준은 역사적으로 달라진다. 즉, 생존의 필요에서 생활의 필요, 즉 삶의 질을 추구하는 필요에 이르는 수준까지 발전하며, 따라서 그만큼 다양하다. 또한 이 필요는 국가와 시장에 실망한 필요이다. 즉, 국가와 시장이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필요이다.

충분조건

충분조건은 협동이다. 엄밀히 말하면 협동의 위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협동의 방법을 사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즉, 일단 협동의 위력을 인식해야만, 그는 자발적인 협동의 실행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번 실행된 협동이 성공하여 개인의 필요가 충족될 때, 비로소 그 협동의 위력을 경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즉, 개인적 필요라는 필요조건과 협동의 위력 인식이 라는 충분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협동이 자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일단 협동의 성취로 개인적 필요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개인적인 필요가 다른 사람들도 욕구하는 필요라는 사실을 즉, 필요의 보편성을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협동의 성공적 경험은 협동의 위력(효과)을 역시 실천적으로(경험적으로) 인정하게 해준다. 전자(필요의 보편성)를 인식하는 것은 협동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후자(협동의 위력)를 인식하는 것은 협동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이후 새로운 협동의 시도로 연결되어 자발성의 지속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하게 된다 (아래 그림 참조).

[그림3] 자발성의 필요충분조건



자발성의 선순환 고리가 작동되려면 논리적으로 최초의 협동이 시도되어야 하고⁷⁶⁾와 그리고 그 협동의 시도가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 필요라는 의식 수준과 협동의 결행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거리의 '건너뛸'이 이루어져야 최초의 협동시도가 가능하다. 이 건너뛸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는 사전적이며, 의식적인 차원의 인식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는 그 주체들이 필요성을 욕구하는 정도와 주체들의 동질성 수준⁷⁷⁾에 달려있다. 즉 개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요구하는가?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각각이 얼마나 함께 공감하고 있는가? 가 최초의 '시원적 시도'를 좌우할 것이며, 이는 이들 주체의 공동된 사회·문화적 배경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최초의 시원적 협동의 시도와 그의 성공으로 획득되는 협동의 당위성과 가능성은 또 다른 협동의 시도를 낳게 된다. 이러한 협동의 순환적 누적은 협동의 수준과 협동의 성공가능성을 계속 높이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마을차원의 협동적 자발성을 설명하는 메카니즘⁷⁸⁾은 밖으로는 '연대'의 논리로 확장되고, 안으로는 미시적인 협동과 자발성의 순환에도 적용된다. 즉, 마을에 존재하는 개별 기관이나 활동에도

76) 순환의 지속적 작동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시원적' 협동의 실행이 필요하다. 성미산마을에는 우리어린이집의 성공적 설립이 그것에 해당한다. 최초의 시원적 협동의 시도에는 의식적 선택이 필요하다.
 77) 앞 절 협동의 위력 <초기세대 협동의 동력과 동질감>에서 서술한 '우리어린이집 설립주체들의 특성' 참조.
 78) 이는 협동에 대한 행위자 차원의 설명이다. 개인이 협동에 참여하는 이유로서 개인의 필요 및 욕구, 그리고 협동의 당위성과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실천적) 인식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성의 메카니즘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시 마을 밖의 활동 및 기관과의 연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발성의 메카니즘이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IV. 성미산 마을의 과제

이제 우리 마을의 역사를 냉정하게 돌아볼 때가 되었다. 마을형성의 과정과 그 동력에 대해서도 살폈으니, 마을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가 제시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야겠다.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은 마을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 나아가 시민사회로 확장해 가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관계 안에 존재하며, 나아가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동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 및 과제 인식은 하되, 대안에 대한 검토는 보류하기로 한다. 이는 이후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커뮤니티

활동의 다극화

최근 마을의 현황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활동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분야별로 구분을 해도 그 내용이 적지 않다. 조직으로도 그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보면 더욱 다양한 양상을 띤다.

[표2] 마을의 기관 및 활동의 분포

분야	기관 및 단체	위원회 등	동아리 등
교육	어린이집(우리, 참나무, 또바기, 성미산), 방과후(도토리, 풀잎새, 성미산학교, 우리마을 꿈터), 성미산학교, 숲속작은도서관	『사람과마을』 교육위원회 마을배움터 위원회 마을방과후 시스템 논의팀	통과의례 기획팀
문화	마포FM, 미디어연대, 춤의문	『사람과마을』 문화위원회 마을축제 집행위원회	아마밴드, 살사댄스동아리, 리코더, 마포스, 노래모임, 연극동아리, 사진팀 「뤼미에르」, 어린이발레단, 어린이노래단, 살판, 힙합팀 「환무」 등등
환경	멋진지렁이, 자동차 두레	『사람과마을』 환경위원회	캔들나이트, 행복한자전거, 골목놀이
복지	마포희망나눔단, 마포자활센터	『사람과마을』 복지위원회	의료인 네트워크
경제	생협, 성미산차병원, 동네부엌, 작은나무, 대동계	『사람과마을』 대안경제연구회, 지역화폐연구모임,	한땀두레, 성미산길 상가친목회
정치/국제	마포연대, 마포청년회		선물
인문/기타		『사람과마을』 연구지원팀	중심모, 심심해, 주역공부팀

활동이 다양하다 보니 마을에서 열리는 회의나 행사도 당연 많아지고, 어디서 어떤 행사가 회의가 있는지도 다 알 수조차 없다. 그러니 행사참여는 커녕, 각 단위의 최근의 중요 이슈가 뭔지 챙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행사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을의 여러 행사 날짜를 잘 살펴 잡지 않으면 흥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모두가 모여 의사결정하고 함께 일을 나누어 치루고 또 함께 모여 평가하며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총동원’체제였다면, 지금은 ‘각개약진’하는 형국이라 다소 외로운 게 사실이다. 각기 자기 일이나 활동의 영역에서 바쁘다 보면, 다른 영역의 일

을 살피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혼자 외롭게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때로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하면 쉽게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저런 사정을 소상이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이도 전 같지 않으니, 더더욱 힘들게 느껴지는 거다. 그러다 가끔 서운함 맘이 들게 되고, 참다 참다 누군가에게라도 “서운하다” 한소리 하면 “나도 그래” 아니면 “난 더 힘들어” 식으로 반응이 날라 오기 일쑤이니, 그 푸념도 참고 만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 힘들구나!’ 라는 짜뿌듯한 모드로 마을을 보게 되고, 마을에 뭔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는 마을협동의 신화를 의심케 하기도 한다. 한때 마을 일을 걱정하는 시니어들이 “마을이 좀 이상하다. 일은 많은데, 잘 풀려가는 일은 별로인 거 같고 뭐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야?” 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 대책은 제안되지 않았다. 마을을 통괄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제안이 제기될 법도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은 마을문제에 대한 인식의 심각성이 덜해서라기보다는, 마을의 일 방식에 대한 경험적인 원칙⁷⁹⁾이 있어서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유는 오히려 명확하다. 마을활동의 다극화가 그 원인인 것이다. 마을의 외연이 확장되고 그 결과 마을활동의 축이 하나의 중심에서 다양한 축으로 분화하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이다. 즉, 성미산 승리 이후 응축된 에너지 분출의 결과인 마을의 확장적 전개가 낳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

다양해진 활동의 깊이를 당사자 외의 다른 이들과 깊이 공유하기란 사실상 어려우며, 따라서 그 문제 해결의 길도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예전의 모두가 함께 달려들어 걱정하고 해결책을 내고 하는 시절과 비교하면 서글프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성미산 에너지의 분출로 다양하고도 수많은 기관과 활동이 만들어 졌지만, 한해 두해를 지나면서 그 각각의 기관과 활동이 뿌리내리고 정착해야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사실상 결코 쉽게 돌파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그룹

1994년을 마을의 원년으로 보면, 햇수로 14년의 세월이 쌓이고 있다. 연령으로 보면, 4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약 15년 정도의 연령층이 공존한다. 이는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마을에 접속한 주민들의 경우이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 생협을 통해 마을살이를 시작한 주민의 경우를 고려하면 연령의 상한은 50대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세대란 단순히 비슷한 연령대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마을에 대한 이해와 마을과 함께한 경험의 차이를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므로, 연령대 역시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실 마을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경험은 차이는 마을에 접속한 계기와 시점에 따라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마을은 초기에 비해 엄청나게 다층적인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대표적인 마을 커뮤니티인 공동육아 조합원 그룹만 보더라도 15년여의 세월이 모두 그대로 단층을 이루고 있다. 어린이집만 해도 평균 3~4년을 함께하고, 졸업해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공동육아의 교육이념을 이어가고 있는 방과후교실로 이어지므로 길게는 10여년을 마을에 체류하게 된다⁸⁰⁾. 더욱이 최근 성미산학교의 설립으로 그 가능성은 더 커지고, 또한 체류기간이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⁸¹⁾.

79) 조직으로 푸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라고나 할까? 사실 마을에는 총괄조직이 없다. 하나 있긴 한데, 마을협동조합대표자회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직은 마을축제와 운동회의 일정을 정하고, 마을공동교육을 결정하는 정도만 의사결정한다. 올 여름 회의 때는 이조차 줄여 마을운동회만 주관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서 본대로 최근 『사람과 마을』이라는 기관이 생겨, 마을의 총체적인 정책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위가 만들어졌다.

80) 도시의 주거지역의 평균적인 이사율이 %인 반면에, 실제 마을 커뮤니티의 이사율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81) 성미산학교는 12년제로 현재 10학년까지의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으며, 점차 학년이 올라가면서 12학년까지 개설할 계획이다. 최근 마을 어린이집 출신 아이들의 성미산학교 진학률이 높아져가고 있는 점은 마을체류 기간의 증가추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성미산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마을로 이주한 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음은 마을의 세대 다층화를 더욱 강화한다. 이들 중에는 동생이 어려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큰 아이들만 있어 성미산학교 이외에는 다른 마을 접속의 계기가 없는 부모들도 있다⁸²⁾. 하지만 성미산학교는 그 자체로 커다란 커뮤니티이고 자기중심적인 에너지가 상당한 그룹이므로, 마을과 접속의 방법이나 속도 및 계기가 또한 독특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성미산학교 부모들의 마을참여가 지속적으로 늘고 또한 집단적이면서 마을접속의 다양한 양상을 띠기 시작한다.

끝으로 생협을 통해 마을을 접속하는 지역의 일반 주민은 그 양적 규모는 어쩌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활동의 수준은 대체로 물품구매이용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물론 어린이집이나 성미산학교 등의 계기 없이 접속한 주민들 중에, 적극적으로 마을일에 나서는 주민들도 있으니 대단히 고무적이며, 이들은 마을의 새로운 세대층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다양하고 다층적인 그룹의 형성과 공존은 마을의 확장과 다양한 전개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마을의 역사가 15년여를 넘어서면서 가지게 되는 혼장과도 같은 결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 층이 다양하다는 것은 마을에 대한 의미가 이들 모두에게 다르다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접속할 당시의 마을이 그들의 마을이며,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마을에 접속했는가 그들이 지니게 되는 마을의 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마을의 층이 다양하다 함은 그만큼 ‘다양한 마을’이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이는 다양한 만큼 상호 소통상 단절과 장벽이 가로놓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러한 단절은 일상에서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일상에서 만들어져 가기도 한다. 일례로 어린이집의 경우에 졸업한 선배와 현재의 조합원들 간에 심지어는 현재 함께하는 조합원들 간에도 세대차이가 있다며 화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뭔가 위하감 같은 것도 있다고 하소연하는 신참 조합원도 있다고 한다. 물론 술한 우여곡절을 다 넘기며, 조합을 설립한 세대와 안정된 조합을 찾아 가입한 조합원이 같을 수는 없을 터이다. 그 입장도 경험한 공동체의 문화도 다 다를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세대층의 차이에 따른 차이가 위화감까지는 아닐지언정 소통상의 단절감을 주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이는 공유하는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의 공유는 ‘설명’을 건너뛰게 한다. 구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다. 함께 공유한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하는 이들 간에는 그 자체로 이미 소통이다. 기억의 공유가 가져다주는 편안함과 동질감을 전제로 하는 소통은 그만큼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하는 기억으로부터 많은 기억할 만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대의 다층화는 이미 번성(?)한 마을의 불가피한 특징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소통상의 단층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이를 어떻게 가로지를 것인가를 생각해야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의 한 층을 차지하고서 마을에 등장한다면 또한 어찌될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서 말이다.

실무자 중심의 활동

성미산 승리 이후 마을 활동상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실무자의 약진이다. 그 수로만 보아도 적지 않다. 생협이 12명, 차병원 2명, 동네부엌 4명, 작은나무 1명이며, 마포연대 3명, 마포FM 4명, 사람과 마을 6명이니까 30여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⁸³⁾. 여기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⁸⁴⁾을 합하면 상당

82) 물론 이들 대부분이 생협이나 동네부엌을 이용한다. 하지만 생협이나 동네부엌은 구매이용만으로 그칠 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마을접속은 보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성미산학교도 3년이 지나면서 성미산 부모들의 마을접속은 활기를 띠어가고 있으며, 그 에너지가 대단히 폭발적일(?) 거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83) 이들은 모두 상근 혹은 반상근의 유급 실무자이다.

한 수의 실무자가 마을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밖에 상근, 반상근 식의 명시적인 유급활동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활동가들이 실무자 수만큼은 될 터이니, 마을에서 총 100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활동가 및 준활동가 수준의 활동을 한다고 보아도 좋다.

실무자 및 활동가들의 약진은 마을의 성장에 따른 결과이며, 마을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현실로 실현해 가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모여서 일을 꾸몄다면 이제는 실무자들의 사전검토와 세밀한 실행계획을 가지고 하게 되고, 실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으니 일머리를 제대로 잡고가게 되는 커다란 장점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다면 주민들의 참여가 간접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을활동의 모든 시도가 대체로 당사자의 발의와 직접적인 행동⁸⁵⁾에 의했던 데 반해, 지금은 각 분야의 실무자들의 계획과 집행지원에 맡겨짐으로써 참여의 직접성이 다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즉 마을의 일이 ‘내가 직접 만질 수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실무자들의 영역으로 우선 와 닿고 나는 그를 통해야만 할 것 같은 ‘멈칫’하는 태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로이 제안하고 직접 행동하고 동참과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 나로부터 직접, 그 욕구와 구상 그리고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허나 이는 실무자들의 안내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 염려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른다. 오히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의심하고, 제안을 망설이며 행동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함께 할 이들을 연결해주고, 그 일의 성공 요소를 잘 안내해 주어 성취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말이다⁸⁶⁾. 오히려 문제는 실무자 자신에게 있는지 모른다. 실무자들의 ‘소외’가 그것이다.

교사들과 비상근활동가들은 제외하고 검토하기로 한다. 교사의 경우는 마을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다고 여겨진다. 이들은 어린이집 및 학교의 인사 절차에 따라 채용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을활동의 참여도 비교적 관련 영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⁸⁷⁾. 한편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는 자기의 생업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에 퇴근 후나 틈틈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실무자란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주어진 업무를 감당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실무자의 소외란, 실무자로서 주어지는 활동과 자기실현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한 자신들이 주민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어떤 기관 혹은 활동을 책임지는 실무자란 정체성이 혼돈 및 대립하는 경우 역시 문제의 상황일 것이다. 한편, 업무의 성격에 따른 소외 현상도 있을 것이다. 즉, 실무자의 활동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주민과의 직접 서비스(생협매장 관리), 총무관리, 기획 및 조직으로 구분가능하다. 여기서 전자로 갈수록 자기실현의 만족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으로는 실무자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할 지와 관련이 있다. 즉, 자원봉사인가? 임노동인가?

84) 어린이집 4곳에서 약 15명, 방과후 4명, 성미산학교 12명, 꿈터와 춤의 문을 합하면 역시 30명을 넘어선다. 교사들은 대체로 마을 일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더욱이 활동가적 참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사라는 역할의 특성상 아이들에 베이더 보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이 보다는 이 마을의 ‘부모(가족)중심적’인 문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이 문제는 따로 한번 깊게 논의해 보고 싶은 중요한 주제이다.

85) 누군가 필요하다 싶거나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된다. 다른 이들은 이를 보고 동참에 의사가 없더라도 ‘고운 눈길로 보여주’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 후에라도 마음이 발동하면 하시라도 힘을 보태 동참하면 되는 것이다.

86) 실제로 실무자들은 개개인의 욕구와 사정을 전체적으로 (상대적이겠지만)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거 해보면 어떨까?” 할 때 “누구도 하고 싶어 하던데” 하며 결행을 직접 추동하거나, “누가 이걸 잘 아는데”라며 꼭 필요한 자원을 연결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마을의 여러 게시판이 이런 네트워크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연결’을 따를 수는 없다.

87) 소속기관의 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들이 대체로 마을에 거주하는 않는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 마을은 일하러 오는 일터이지, 주민들처럼 살러 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의 질문에 명쾌한 답이 어렵다. (저임의 비정규적)임노동이라고 하기에는 고용주의 성격이 애매하다. 그렇다고 자원봉사라 하기에는 업무의 일관 지속성, 조직성, 책임성 등에서 차이가 있다. 임노동으로도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도 모두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른바 ‘마을노동’, ‘활동가노동’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⁸⁸⁾.

2. 지역사회

성미산 커뮤니티의 활동이 꽤 다양하고, 그 폭도 넓어지면서 언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심도 점차 늘어가 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성미산지킴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 생협이나 동네부엌과 같은 생활밀착형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미산을 지킬 당시의 ‘용맹스런’ 성미산지킴이들이라는 강성 이미지가 탈각되고, 지역사회에 많이 다가서고 있다. 이는 생협을 가입한 조합원들의 면면과 그 수를 보면 분명해진다. 지역 아이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꿈터⁸⁹⁾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방학 때마다 개설되는 다양한 대안적인 프로그램⁹⁰⁾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커뮤니티의 교육적 역량에 신뢰를 갖는 주민이 늘고 있다. 더욱이 성미산학교의 설립은 대안학교라는 이슈의 비중 못지않게, 생각보다 큰 규모 등이 지역사회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축제를 통해 문화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커뮤니티의 역량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는 내부적으로 닫혀있을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 지역 주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는 지역사회를 공동체의 정서가 감도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진취적인 뜻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커뮤니티가 온전히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해야 한다는 인식에 이른 것이기도 하다. 즉, 지역사회에 두루두루 안착되고 지역주민에 연결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특별한 소수 집단의 자기만족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끝내는 그나마 일궈온 커뮤니티의 성과조차도 제대로 건사하기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이슈가 세 가지 있다. 하나는 커뮤니티의 공동체성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방법과 경로에 관련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진입장벽으로서의 문화적 문턱과 관련한 것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지도적 능동성을 발휘함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마지막이다.

확산의 경로?

마을에서 뭔가 새로운 활동을 기획할 때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느냐이다. 커뮤니티 내부의 성원들만이 이용할게 분명한 사업이면 관계가 없는데,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가능하고 또한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예를들면, 그동안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되던 ‘마을소극장’을 설립한다고 치자. 그때 그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와 같은 문제이다. 기존의 커뮤니티 성원들이 주로 모여 사는 위치⁹¹⁾를 선택할 것인가, 정반대로 오히려 먼 곳을 선택하느냐인데, 후자의 의견은 보다 많은 비커뮤니티 주민의 이용가능성을 높이자는 이유에서이다. 물론 전자의 의견은 그렇지 않으면, 이용도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의 성과가 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댈다.

88) 두레생협에서는 어머니노동, 두레노동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를 마을의 일반적인 활동가, 실무자의 현실에 적용하여 일반화하여 설명해볼 필요가 있다.

89) 태권은 꿈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자전거여행, 야영, 축구활동 등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어머니들로부터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90) 「마을 배움터」로서 올해로 2년차 3회째 운용되고 있으며, 점차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지역사회의 참여도 늘고 있다.

91) 우리가 우스개로 메인 스트리트이라고 부르는 구역이 있다. 성서초등학교 사거리~망원우체국 사거리 사이의 길. 행정상 망원동길로 되어있으나, 커뮤니티에서는 성미산길로 부른다. 축제 때 ‘차없는 길’ 구역이기도 하다. 이 구역을 중심으로 마을의 접근성이 분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정량적이고도 실무적인 판단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다소 이념적인(?) 논쟁으로 빠져들게 된다. 즉, 마을이 뭐냐? 어디까지가 마을이냐?로 시작하여, 중국에는 ‘이건 우리 끼리끼리만 잘 살자는 폐쇄적인 태도’ 아니냐?며 다소 췌(?)⁹² 비판적 지적으로 논의를 이끈다. 이러한 의견은 대체로, ① 마을만들기라는 과제에 적극적인⁹³ 입장이며 ② 그 마을이라 함은 대체로 광역적인 범위를 상정하고 ③ 신설사업은 기존의 활성화된 곳이 아닌, 즉 활성화시켜 마을에 합류시켜야 할 필요가 높은 곳(주민)에 우선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즉 마을만들기에 대한 과제인식의 강도와 그 방법론 차원의 논의라는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함께 주목해야 할 초점이 있다. 즉, 이 의견은 기존 커뮤니티(성원들)의 폐쇄적 성향, 자기만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경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기존 커뮤니티가 자기도 모르게 기득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반대의 의견이 나와야 어울린다. ① 일단은 신규사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② 이미 마을 네트워크에 노출되어 있어, 비교적 활동참여가 적극적인 성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즉 후자의 의견대로 하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워 사업의 출발이 위태롭다는 상황판단을 한다. 그나마 기존 커뮤니티 지역에 위치해야 초기의 가동이 원만하고 그래야 좀 더 넓은 범위의 주민들도 참여하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논리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커뮤니티라 해도 그 참여의 수준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선불리 광역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커뮤니티 역량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결국 자원을 산포(散布)시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것을 염려한다.

이 논의는 상당부분 주민의 참여(가능)도와 그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문제이면서도, 마을만들기의 경로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단은 양자 모두 마을만들기를 동의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그 방법적 경로만이 남는다. 전자는 마을을 좁게 보고 후자는 비교적 넓게 본다. 물론 상대적인 비교이다. 마을을 비교적 넓게 보게 되면, 씨앗을 골고루 뿌려 동시다발적으로 발아시켜, 마을형성의 시너지를 내고자 한다. 따라서 한곳에 자원이 몰리지 않고 균형 있게 자원을 분포시키는 것을 중시하게 된다. 반면에 전자처럼 비교적 좁게 보면, 집중적인 자원배치로 마을단위의 밀도 있는 활성화를 꾀하고, 활성화에 성공한 작은 마을이 인근에 여러 개로 복제 확산되는 경로⁹⁴를 상정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적절한 마을의 규모가 얼마인가로 귀결된다. 사실 이 문제는 동서를 불문하고, 논의의 역사가 오래다. 공동체운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공동체의 규모가 논의된다. 물론 일괄해서 정할 수는 없을 터, 시대에 따라, 지리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공동체를 일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관계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를 것이 분명하다. 우리에게 적절한 규모는 뭘까? 대도시 근린주거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함께 실현해갈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의 규모는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아이를 혼자 다녀오게 할 수 있는 거리’ ..., ‘큰 찾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범위’ ..., ‘걸어서 마실 다녀올 수 있는 정도’ ... 뭔가 실증적인 근거는 없지만, 이 정도면 어떨까? 너무 좁은가? 아니면 이것도 넓은가? ... 고민해 볼 일이다.

커뮤니티 정체성과 진입장벽

확산의 경로문제는 사실 문제랄 것도 없다. 항상 부딪치는 문제도 아니고, 의사결정을 하는 비교적 소수의 관계자들의 테이블에서 논의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 문제가 커다란 쟁점이 된 적은 별로 없다⁹⁵. 하지만 이른바 진입장벽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일단 이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92) 공동체 이기주의로 빠져들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93) ‘마을만들기?, 하면 좋지’의 수준에서 커뮤니티의 도덕적 의무 내지는 당위적인 과제 수준까지 그 입장의 온도차가 있다.

94) 꼭 순차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 터, 현실에는 어느 단계엔가, 함께 형성되어 가는 복수의 마을이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상호 불균등(특성적) 발전의 경로를 밟은 것이다.

95) 그러나 앞으로는 마을의 활동이 다양화 지역사회로의 광역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 여겨진다.

마을에 이미 살면서 커뮤니티에 관심이 생겨, 진입 혹은 접속을 시도할 때 느끼는 경우가 있을테고, 또한 마을의 특정 기관(활동)과 결합하기 위하여 이사를 와서 겪는 진입장벽이 있을 것이다. 진입장벽을 느끼는 마당에 어느 경우가 더하고, 덜하다 말하는 것이 어폐가 있겠으나,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 대체로 성미산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키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기 위해 이사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로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성미산마을이 대단한 마을이라는 선입견⁹⁶⁾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 잔뜩 기대를 안고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니올시다’ 싶을 때, 배신감을 맛본다고 한다. “마을에 이사 오면 성미산만의 독특한 세리모니와 친절하고도 품위 있는 마을살이에 대한 안내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누구하나 반기기는커녕, 알아보는 이조차 없어서 처음에는 놀랐다가,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속았다는 느낌이 들” 더란다. ⁹⁷⁾

그러나 이 문제는 마을 새내기들에 대한 마을안내의 미비로서 진입장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마을 차원의 프로그램을 정비하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그리고 마을살이를 조금씩 하다보면 금방 잊혀지고 용서(?)가 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보다 더 한, 눈에 확 띄지 않는 ‘은근한’ 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마을에 살고 있던 경우나, 이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마을살이에 돌입한 후에, 마을사람으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니 심각하다 할 수 있겠다. 뭔가 끼어들기가 뭇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들 끼리만의 대화, 자기들 끼리만의 별명 부르기⁹⁸⁾ 등등이 그런 예라고 한다. 좁은 생협 매장 안에서, 지나치게⁹⁹⁾ 반가와 하면서 인사하는 모습도 거슬리더란다. 마치 이방인이 되어 뭐라 끼어들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있다가 서둘러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기분 등등.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럴 리야 없고, 따지고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극히 자연스런 행동이기도 하다.

마을의 어떤 기관에 소속되게 되어 이사를 온 후자의 경우에는, 그런대로 소속된 관계 속에서 커뮤니티의 따뜻한 사랑도 느끼고 마을살이의 이모저모를 학습할 있지만, 전자의 경우인 마을에 살면서 접속하게 되는 주민의 경우는 달리 챙겨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어디나 낯섬의 불편함은 있기 마련, 시간이 해결해줄 일, 처음엔 누구나 다 그런 것 ... 하고 가벼이 여길 수도 있다. 또한 그렇다고 매장에서 반가운 사람 만나도 새내기들 있는지 확인하고 웃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안내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참여의 계기를 만들고, 새내기들이 쉽게 접근하고 가볍게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생협에는 여러 개의 마을모임이 구성되어 있고, 이 마을모임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도적 능동성과 거버넌스

커뮤니티가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커뮤니티가 새롭게 기획하는 활동들이 무척 다양해지면서 커뮤니티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커뮤니티 외부의 관계, 즉 구청 및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과의

96)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 공동체’라는 성미산마을의 명성(?)에 호감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97) 그래도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소속되게 되어 이사한 사람은 그 기관에서 형성되는 관계가 있어 그나마 완화되는데, 미리 이사 온 경우에는 참으로 황당한 경우가 될 법도 하다.

98) 실제로 생협 계산관에서 별명을 사용하는 것이 거부감 또는 위하감(?)을 준다면, 별칭사용을 금지(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사실 별명은 어린이집에서 비롯된 오랜 문화로서 마을 커뮤니티의 초기 그룹들에게 고유한, 자연스런 문화의 일부이며 상징적이기조차 하다. 실제로 마을 밖의 사람들은 이 마을의 어른들이 서로 별칭으로 자연스레 부르는 장면을 보고, 대단히 신기해하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을 별칭으로 부를 때, 더욱 특이해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모르는 주민들, 특히 지역의 주민 조합원의 경우 이러한 모습은 별스럽고 심지어 이들만의 특별한 표식인 것 같아 거리감이나 위하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우려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조합원이 있었다고 한다.

99) 보는 이의 불편한 심사에서 보아 지나치다는 것이리! --;;

관계를 적절히 조절해가지 않으면 사업(활동)의 원만한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커뮤니티가 어떤 사업을 기획할 때, 그 주요 대상이 지역사회의 주민이거나, 또는 구청의 지원이 사업의 성패에 주요한 변수로 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구청이 제안한 사업을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내부뿐만 아니라, 구청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입장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시민단체와 같이 뚜렷한 이념이나 활동방향이 사전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동의하여 모여진 결사체도 아니고,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조직성이므로, 자신의 외부(구청과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하여 능동성을 가지고 조정을 시도하거나 나아가 지도성을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따른다.¹⁰⁰⁾ 물론 성미산투쟁 당시 이미 그 지도적 능동성은 충분히 발휘되었지만, 투쟁 이후 일상의 공간과 국면에서도 그대로 연속하여 발휘¹⁰¹⁾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예로써 최근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가 대표적이다. 연남동에서 망원 한강체육공원에 이르는 망원동길(성미산길 구간의 양끝까지의 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존도로를 줄여 개설하겠다는 마포구청의 사업¹⁰²⁾이 제안되었다. 구청은 커뮤니티를 의식하여 의견을 구하고, 우리 역시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바람직한 사업이며, 기존의 자전거타기 활동의 연장선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같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으로는 개설 예정 도로가의 상인들이 주정차의 곤란함을 들어 반대하고, 인근의 주민들도 도로 폭의 축소에 따른 교통정체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구청은 또한 이미 서울시로부터 사업공모가 선정되어, 어떻게든 조속히 사업을 집행해야하는 입장¹⁰³⁾이 있었다. 또한 구체적인 설계안으로 들어가면 구청과 상인과 커뮤니티가 각기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간에 이해 또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구청과 지역주민과 커뮤니티가 서로 입장이 다르게 되는 민-관 및 민-민의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커뮤니티가 입장을 어떻게 세우고 민-민 및 민-관의 관계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조율해 가야하는 과제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커뮤니티 내에서 주민들의 필요와 차이를 조정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원리와 방법을 요구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그래도 ‘고운 눈길’을 나누며 여러 가지가 양해되는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된다. 조금 서툴거나 실수가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다른 자리에서 풀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로 나오면 상호 이해의 폭이 좁아 다소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분위기가 불가피해진다. 작은 실수도 쉽게 치명적인 불신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매사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을 것이다.¹⁰⁴⁾

어쨌든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주민들과 형식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지도성을 발휘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커뮤니티가 일구어온 많은 성과들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대등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주 만나 소통을 해야 한다. 구청 역시

100) 일사불란한 조직체계가 없음을 물론이고, 뚜렷한 가치기준이 명시적으로 있어, 어떠한 판단을 명료하게 단일한 경로로 할 수도 없다. 더욱이 커뮤니티 내부에는 그 동안의 관행과 ‘풍(風)’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가 많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다.
 101) 물론, 성미산을 키웠으니 이제 살려내는 운동(식목, 산길 줄이기 등)을 전개하고, 이후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는 한양대재단의 아파트개발에 대처하며, 나아가 구청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실상 지역사회 차원의 지도적 능동성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포연대』를 설립하였었다.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102) 마포구청이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5억여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이다.
 103) 연내 착공하여 예산 집행이 개시되어야, 할당예산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의 강행을 고집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만 집행되고, 나름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예산 회수는 생기지 않음을 인정했다.
 104) 물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이 거듭되다 보면, 당연 관계가 생기고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초기 활동이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관’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의미있는 파트너¹⁰⁵⁾로 배치하여, 지역사회의 의제를 함께 바르게 설정해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번 구청장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지역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중요한 임기 중 과제¹⁰⁶⁾로 내세우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커뮤니티로서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게 되는 것이며, 적극적 의미로는 지역사회를 돌봄과 소통이 있는 공동체로 한층 다가서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형식적 대표성¹⁰⁷⁾을 지니고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실체이다. 그러나 오늘날 주민의 욕구(공공 서비스)는 고도로 다양화되고, 그 수준도 높아, 지방정부의 관료제 조직으로는 효과적인 제공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로서도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이는 정책의 순응성을 확보하고, 지지기반을 획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주민친화적 정책을 단순히 정치적 체스처로 보거나 포섭의 의도만을 강조하는 ‘음모론’ 적 경계의 태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¹⁰⁸⁾.

거버넌스¹⁰⁹⁾의 유형을 대체로 의제설정, 정책의사결정, 실행의 세 단계로 구분할 때, 의제를 함께 설정하는 것이 거버넌스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의제에 사후적으로 정책적 의견만을 개진하거나, 심지어는 이미 정부가 의사결정한 사업의 실행단계에서 동원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이는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라 하기에는 부족하다. 무엇이 필요한가부터 함께 인식하는 것이 주민과 관료들 사이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할 때, 그 실행의 탄력이 확보되는 것이다¹¹⁰⁾. 집행력이 바로 여기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상호의 대등성, 대칭성이 조직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존 기관에 일부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여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이고 자율적이고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¹¹¹⁾, 성과있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

3. 시민사회

시민사회와 주민활동

마을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성미산지킴이 당시의 기간으로 여겨진다. 직접적으로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우리의 투쟁을 지원해 주었다. 성미산 투쟁 이후에는 생협의 활발한 활동과 성미산학교의 설립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시민사회가 도시 속 마을 만들기의 드문 사례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지역 차원의 돌봄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면

105)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 함은 양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대칭적인 관계 아래, 각자가 갖지 못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상호의 목적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주도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견개진 및 실행 분담 차원의 비대등적이며 비대칭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이다.

106) 주민자치센터가 그것이다. 이는 서울시 전체의 행정개혁과제이며, 마포구가 시범적이며 선도적인 개혁주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107)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의미의 대표성을 말함.

108) 물론 양 측면이 있다.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지방 정부의 들러리로 활용되고 (포섭, 包攝) 결국에는 커뮤니티의 진정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동시에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의 경우에서 그 위험성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적절한 힘의 균형(대칭성,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109) 거버넌스 (governance) : 협치(協治), 공치(共治)라고도 하며,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간의 자율적, 수평적 복합조직(Jessop), 자기조직적이고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의 복합조직과 통치과정(Rhodes), 관리, 정책, 체계 차원을 포괄하는 대안적 국정관리형식(김정렬) 등의 정의가 있다. 즉, 거버넌스란 다양한 행위주체가 참여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위주체들 간의 권한배분, 상호조정, 상호협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0) 흔히 관료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소통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일일이 토론하다가 사업은 언제 하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그간의 경험법칙에 따른 입장이기도 하다.

111) 권한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그럴 때, 비로소 ‘참여’가 이루어진다. 최근 구청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 프로젝트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지키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 마을의 여러 사업을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그동안 대정부 견제 중심의 활동, 중앙조직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것 같다. 이는 앞서 살핀대로 불완전하지만 형식적 의미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실현¹¹²⁾, 정당들의 민주적 의제 흡수¹¹³⁾ 등으로 시민단체의 의제 설정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는 환경적인 조건과 함께, 이른바 ‘시민없는 시민운동’¹¹⁴⁾ 즉, 시민참여의 부재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바탕에 깔려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지방정치관(지방정부와 의회)은 중앙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머물고 있어¹¹⁵⁾, 지역차원의 자율적인 정치구조의 안착이 더딘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전통적인 활동과 지역차원의 시민적 에너지가 적절히 결합될 때, 시민사회의 역동이 다시 살아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진전¹¹⁶⁾되며, 지역차원의 생활정치가 움터¹¹⁷⁾, 결국 한편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커뮤니티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커다란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차원의 주민활동이 시민사회 발전에서 가지는 의미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구체적인 공동행동이나 연대를 성급히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지역에서의 활동의 의미를 지역차원을 것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넓은 차원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담론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활동과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로써 노인복지 및 의료보험 문제 등의 보건복지정책, 그리고 바른 먹거리 및 생협과 FTA 등등.

구체적인 연대의 모색과 ‘마을살이’의 성찰

오늘날 시민사회는 대단히 다양한 생활상의 요구와 가치 실현을 향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 생활상의 요구라 함은 단지 생존의 요구를 넘어, 교육, 의료, 보건, 환경, 여성,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삶의 질을 요구한다. 또한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소외 극복, 개인의 자율과 이니셔티브 확보, 생활의 안정과 복지, 공적 영역에 대한 참여, 정치적 담론의 활성화와 주체적 참여, 공동체적 교류와 자아실현 등 현대적인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다¹¹⁸⁾.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다양한 활동과 운동이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곳곳에서 자생하여, 나름의 조건에 적응하며 특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112) 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군부의 정치무대 퇴장을 비롯하여 독재적 억압정치가 약화되고 언론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을 이룬다.

113) 정치권으로의 ‘의제 흡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위원회 및 정치권 진출 등 ‘지도부의 흡수’(?)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된다.

114) 이를 비판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시민사회의 유형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세계적으로 시민사회는 자발참여형(미국)과 자원참여형(북유럽), 그리고 엘리트형(한국, 이탈리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아무개). 엘리트형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는 약한 반면, 대정부 직접행동력과 담론투쟁 능력이 탁월한 특징이 있다. 자발참여형은 미국적 모델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활동 (association)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의 엘리트형 시민사회처럼 전사회적인 의제 설정과 대정부 차원의 투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사회의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보아야지, 일반화하여 평가할 일은 아니다 한다 (조효제).

115)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정부의 풀뿌리 착근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16) 시민사회의 정치화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많은 삶의 요소들이 공공의 영역으로 제기되고, 공공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진전될수록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에너지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117) 국가차원의 정책이라 해도 결국에는 지방(local)의 주민들의 생활 영역에서 그 효과가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생활정치가 활성화되는 것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이며,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렛대가 된다.

118)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모임(Association)을 낳게 된다.

그동안 연대라 함은 커다란 이슈와 대규모적인 공동행동을 주로 떠올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자의 활동목표와 조건에서 보자면 적잖히 부담스런 일이고, 구체적인 연결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실제적인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연대가 아닌 작은 일상적인 연대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안학교는 교사들 간의 교류, 학부모, 학생들끼리의 교류가 일어나고, 프로그램의 공유, 대정부 공동행동의 조직 등등 활발한 연대를 한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도 있지만 오히려 현장과 현장간의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교류를 한다. 이른바, 네트워킹(networking)이라고 하여 활성화된 연대의 방식이다. 생협에서는 주민들의 생산지 방문이 정례화되어 아이들과 어른들이 적게는 10여명 많게는 몇 십 명이 하루 또는 1박으로 방문하고, 생산지의 어려움도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농민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공감한다. 거꾸로 산지의 농민들도 소비자들이 사는 도시로 방문하여 우리들 사는 모습을 보고 서로 감사를 나눈다.

연대란 커다란 대의에 일사불란하게 동원되는¹¹⁹⁾ 것이라기보다는, 각자의 필요와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불 일을 보고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교류와 소통의 반복이 신뢰를 쌓고 실효를 상호 경험해갈 때, 더 깊고 더 넓은 연대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다양한 필요에 의해 그리고 다양한 규모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네트워크 정보이다. 어디에 누가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동시에 어디에 누가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이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트 기능이 중요하다.

다양한 활동과 기관 및 단체가 각자의 필요에 의해 횡적으로 연결되는 것, 이 연대의 빈도가 늘어나고, 연대의 깊이가 깊어지고, 연대의 효능이 높아질 때, 일상의 리듬이 살아있고, 삶의 다양성이 담겨있는 그래서 주체적이고 풍부한 연대가 실현되는 것이다. 우리마을에서도 각각의 분야와 활동주체들이 독자적으로 마을 밖의 활동주체들과 교류를 한다. 그 범위도 나라 안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밖의 여러 활동과 교류를 확대해 가고 있다. 가깝게는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며, 동남아의 여러나라 버마, 필리핀, 팔레스타인등과도 교류가 생기고 있다. 특히 마을의 국제교류 동아리 『선물』 팀은 버마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직접 방문교류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교류는 아이들의 글로벌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더 추진력 있게 진행되기도 한다. 아이들도 동기부재의 시대에 자기학습의 내적 동기와 자극을 찾아, 마을 밖으로, 도시와 지방으로, 외국으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활동그룹과 직간접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는 마을살이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대목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 미래는 어디에 닿아있는 것인지 등등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내다보는 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V. 나가면서

마을의 실체?

이제 앞에서 보류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야겠다. ‘마을에 대한 통일적인 상이 있는가?’에 대한 답 말이다.

마을주민 각자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마을은 제각각 모두 다를 것이다. 통일적이고 이미 전제된 무엇인가가 우리를 “주민여러분” 하며 ‘일괄 호명하는’, 그래서 내가 그것에 적응하고 맞추어야 하는 그런 마을은 ‘우리마을’이 아니다. 우리에게 마을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접속하고 관계 맺는 그곳,

119) 동원이라는 표현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각자의 ‘필요와 인식’을 넘어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연대를 지양하자는 취지로 사용한 말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마을’의 공간이고 주민이다. 접속할 때의 느낌과 반응이 곧, 마을에 대한 나의 이미 지일 것이다. 그러니 마을은 어떤 통일적인 정해진 상이 있을 수 없는지도 모른다. 결국 주민의 수만큼 이나 다양한 마을의 상이 혼재할 뿐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나에게 마을은 무엇인가? 나의 마을의 주 민들은 누구인가?

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말’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나처럼 ‘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시판 의 매단 댓글과 사진 몇 장으로,..... 누구는 노래로, 몸짓으로 춤으로, 마실가서 풀어내는 수다로, 생맥 주 몇 잔에 취해 쏟아내는 과거의 서운했던, 그리고 기뻐던 기억들로, 노래방의 광기(^)로 풀어내는 우 리의 기억과 욕망이 곧 마을의 실체이고 그 자체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의 합이 비로소 ‘우리마을’이다. 내 가 나로 존재하고 나로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한 마을, 그러나 함께하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가벼운 흥분이 스물거리는 마을, 그래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함께하면 즐거운 마을이 우리마을 이다.

이제 마을에 말을 걸자!, 그리고 마을을 이야기 하자!, 아니 마을하자!

이제 동네 게시판에 댓글 매달며, 사진 몇 장 올리는 수고로 마을에 말을 걸자

마실가서 풀어내는 수다로 마을이야기를 시작하자 ... 생맥주 몇 잔에 취해 쏟아내는 과거의 서운했던, 그리고 기뻐던 기억들로 마을을 이야기하자 ... 그러다 재미가 붙으면 심야(아니, 새벽)노래방의 깜짝 놀 래키는 광기(^)로 마을을 이야기하자 ... 그리고 용기까지 생기면, 노래로, 몸짓으로 춤으로 마을을 이 야기하자 ... 아이들 먼나들이 보내고 ‘자유부인’된 아줌마들 집단일탈로 마을을 이야기하자 ... 몇 년된, 아이 어릴적 날적이 꺼내 보며 살며시 마을을 이야기하자

마을운동회 경품에 사생결단(?)하며 마을하자 ... 성미산리그 축구경기에 나선 어설피지만 열심인 애들 아빠, 애들하고 목 터져라 응원하며 마을하자 ... 한겨울 양말도 안 신고 동네 싸돌아다니는 조무래기들 을 나무라는 한마디로 마을하자 ... 훌쩍 큰, 마을의 큰 아이들에 술 한 잔 권하며 마을하자 ... 동네 맘 맞는 친구들과 책을 함께 읽으며 마을하자 ... 지나가는 동네 꼬맹이의 인사를 받으며 내민 손짓으로 마 을하자 ... 긴가민가 이웃아줌마의 인사에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던지는 반가운 답례로 마을하자 ... 애들 일찍 채우고 동네 마실 나와 맥주 한잔하며 마을하자 ... 『춤의문(門)』에 문 두드리는 용기로 마을하 자 ... 살사리듬에 제법 경쾌하게 ‘흔들려주는’ 내 몸에 기뻐하며 마을하자 ... 어린이집 게시판, 옛날 글들 뒤져 읽고는 입가에 미소 지으며 마을하자 ... 가끔 게시판에서 댓글 논쟁 벌이며 마을하자 ... 작 은나무에 앉아 쓴 커피 마시며, 손 꼭 붙들고 재잘대며 나들이 가는 아이들 보고 ‘이게 여유구나’ 하며 마을하자 ... 안타는 자전거, 작아진 옷들 물려줄 동네 동생들 떠올려보며 마을하자 ... 수많은 마을회의 에 헐레벌떡 쫓아다니는 나를 위로하며 마을하자 ... 게시판에 달린 낯선 이름(별명)이 누구냐고 물어보 며 마을하자 ... 동네부엌에 혼자와 동그랑땡 몇 개 올려놓고 밥 먹겠다는 머스매들, “택도없다” 김치, 나물 얹어주며 마을하자 ... 동네 아이들에게 '알바'거리 만들어주며 마을하자 ... 하루쯤 이웃집에 아이 들 맡겨놓고, 옆지기와 우아하게 영화관 가서 마을하자 ... 동네 어슬렁대는 놈들 ‘어디 가냐?’ 물어보며 마을하자 ... 들머리식당, 윤재아빠가 차려주는 대로 먹으면서 마을하자 ... 이런 거 말고 따로 마을하는 방법 궁리하며 마을하자 ... 이런 거 다 여유 있는 집이나 하는 거지 푸념하며 마을하자 ... 그럼, 이 중 에 몇 가지라도 꼭 하기로 결심하며 마을하자. 끝.

2007. 11. 12.

짱가 씬.

지역화폐와 대안 경제

김성훈¹²⁰⁾

I. 화폐 발행권과 민주주의

“만약 미국인이 끝까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국가의 화폐발행을 통제하도록 둔다면 이들 은행은 먼저 통화 팽창을 이용하고 이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써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손자들이 자기의 터전과 선조가 개척한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은행이 부분 준비금 제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수표 화폐는 가짜 돈을 몰래 찍어내는 것과 같다. 이 '가짜 돈'을 처음 받은 사람은 먼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실컷 음식을 시켜 먹는다. 최초로 가짜 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시장 물가가 원래의 수준이므로 그의 손에 있는 가짜 돈은 종전과 똑같은 구매력을 지닌다. 레스토랑 주인은 가짜 돈을 받아 옷을 한 벌 사 입음으로써 두 번째 수익자가 된다. 이때 가짜 돈의 유통량은 아직 시장에서 나타날 정도가 아니므로 물가는 아직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짜 돈이 유통되면서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게 된다.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은 가짜 돈을 손에 넣기 전에 물가가 전면적으로 상승해 버린 경우다. 그들의 손에 있던 돈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점차 구매력을 잃어버린다. 즉 가짜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보며, 그 돈을 늦게 손에 넣는 사람은 손해라는 이야기다. 현대의 은행 제도에서는 부동산이 은행과 가까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덕을 본다. 반면에 노인연금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착실히 저축을 해온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통화 팽창의 과정은 곧 사회의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 사이에서 은행 시스템과 멀리 있는 가정은 재산의 손실을 본다.” (화폐전쟁, 송홍빙 중에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미연방준비제도(FRB)가 초국적 금융자본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마구 찍어서 주는 것을 보며 말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화된 손실은 우리 몫이 된다.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웃, 친지들에게 돈을 빌리려하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이다. 삶을 포기하거나, 독하게 싸워 이겨서 살아남기. 물론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더 격한 대립, 더 강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만을 상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나누고 협동하면 사람들은 돈에 의존하기보다 이웃과 자연에 의존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행위가 된다. 화폐는 최소한의 교환을 위한 것일 뿐,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화폐경제는 그 속성상 공동체와 적대적이다. 사람들을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 농토를 빼앗아 도시로 내몰고 생산수단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돈을 미끼로 내부경쟁시스템을 유발하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든다. 생산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분업화는 이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고립을 가속화하고 인간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유리된 채 홀로 버려진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화폐를 취득하는 일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최초로 완성되는 순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는 무한반복을 통해 한편에서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그 모든 관계와 만인을 향한 투쟁, 자연을 향한 투쟁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황을 맞이하며 스러져간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 이웃과의 관계를 오로지 돈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는 자

120) 민들레의료생협 조직지원부장,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트레이너

나캐나 돈을 벌 궁리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웃과 자연은 무시된다. 자본주의를 사는 현대인의 비극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눔과 협동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과 협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자본주의 화폐경제 사회도 엄연한 공동체이다. 다만 이 공동체는 우애와 연대의 인간관계의 기반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화폐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란 것이다. 화폐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화폐를 누가 어떻게 발행하는가?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없다"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의 말이다. 그는 교묘한 수법으로 어리석으며 허영심 많은 왕으로부터 화폐발행권을 획득한 후 세계인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화폐 발행권은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다. 그곳이 민영은행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철저한 사익추구집단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가장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어야 할 화폐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무책임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들은 인류의 재산, 지구의 자원을 조금씩, 때로는 흥폭하게 사유화한다. 한 국가의 화폐발행권이 국가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의 이동은 이미 국경을 초월한지 오래이다. 국경을 초월한 이후 한국 화폐 “원”의 가치는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행하는 달러에 종속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특정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발행되는 화폐이고 이 화폐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도전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화폐발행권을 갖는 것이다.

II. 대안은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풀뿌리 운동은 풀뿌리 경제로부터

<풀>이란 무엇인가? 농작물은 특정한 식량을 재배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어진 풀이다. 이들은 벼, 콩, 배추 등 독립된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상품이 되며 그 순간 풀이면서 풀이 아니게 된다. 그와 달리 쭈, 명아주, 질경이, 민들레, 벌금자리 등은 상품이 아닌 한에서 풀이지만 이 또한 상품화할 목적으로 채취되거나 재배될 경우 자신의 독립된 이름을 가지며 풀이 아니게 된다. 풀뿌리 운동에서의 풀뿌리라는 은유는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상품이 아니라는 것은 상품-화폐-자본의 질서에 편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풀뿌리 운동이란 “권력을 갖지 못한 시민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하승수)이다. 권력으로부터의 소외는 풀뿌리 운동 주체의 중요한 성격이 되며, 나아가 자본으로부터의 소외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할 때, 이것은 특히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소외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며 풀뿌리 운동은 다시 말해 식민화된 생활세계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스스로 주인되는 운동으로 가장 직접적이며 근본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풀>의 특징을 통해 풀뿌리운동의 몇가지 특성을 정리해보자.

1. 풀은 일부러 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겨난다.<자발성><자연성><주체성>
2. 풀은 홀로 화분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군집을 의미한다. <집단성><조직성>
3. 풀은 특정한 하나의 종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통칭한다.<다양성><개성존중>
4. 풀은 어디서나 자라난다.<생명력><번식력>

풀은 <땅>, <물>, <빛>, <바람>이 있어야 자란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풀이 사라지는 이른바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중이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사막에 물을 대고 풀을 심는다. 사회 운동 역시 사막화되고 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 풀뿌리 운동이다. 지구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풀에게 땅, 물, 빛, 바람이 필요하다면 사회운동에는 경제(물), 지역사회(땅), 비전(빛), 활동가(바람)가 필요하다.

1. 지역사회(땅)
생활이 일어나는 장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실천한다. 쌀, 된장, 김치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나?
2. 경제(물)
경제는 사회운동의 주제에서 변방에 위치해왔다. 그럼에도 모든 이들은 경제에 주목했고 이에 응답하지 못했던 사회운동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쇠퇴해왔다. 민주주의는 정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긴 자가 다 가지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를 민주화하기 위한 전략은 사회운동의 가장 주요한 전략이 된다. 노동조합운동은 여전히 유력한 운동이지만 노동조합만으로 경제민주화 운동을 다 이루어낼 수는 없다. 8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권력감시운동이 주를 이루었다. 경제민주화운동은 상대적으로 빈약했고 약간의 경제민주화운동도 대자본의 비판자, 감시자의 역할에 머물렀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풀뿌리 경제,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돈을 모으거나, 돈을 만들거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협동조합과 지역통화가 있다.
3. 비전(빛)
사회운동에서의 빛이란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비전의 방향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세계의 주인이 되자"는 것이지만 이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운동의 과정에 관철되게 하는 일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비전은 특정 엘리트에 의해 주어졌고 그에따라 대중은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이었다면 풀뿌리운동에서의 비전은 자신의 삶에 발 딛고 서서 스스로 참여하고 관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라는 현재중심, 과정중심의 비전이 요구된다. 운동의 과제를 미래로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할 수 있을 만큼 실현하자는 것이 풀뿌리 운동의 비전만들기 방식이다.
4. 활동가(바람)
주민이 자신의 지역사회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 활동가는 조직가라 할 수 있고 조직가는 주민을 만나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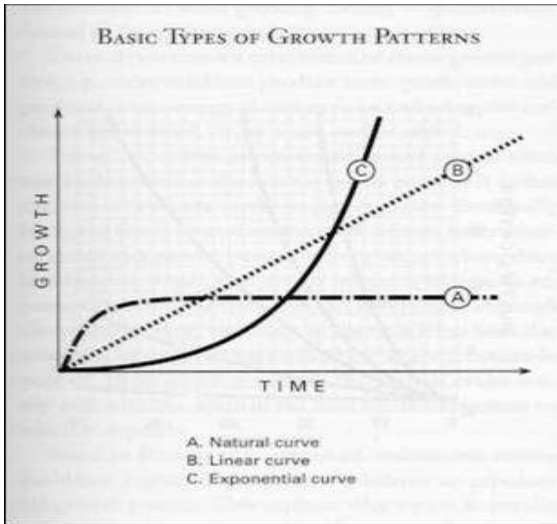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나온다. "군대, 경찰, 법 없이도 평화롭게 사는 마을, 돈이 없이도 재밌게 사는 마을을 만들자."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구호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군대, 경찰,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서,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을에 대한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고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글은 돈 없이도 재밌게 사는 마을에 대한 이야기이다.

Ⅲ. 이자와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운 돈

연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의 재산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면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뺏어올 수 있다. 다수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소수는 벼락부자가 된다
 -경제학자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마그릿트 케네디 박사는 독일 지역통화 (REGIO)를 이끌고 있다. 그녀가 2004년 7월 유럽 보완통화회의(Conference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역통화운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그릿트 케네디는 “이자와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운 돈(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현재의 통화제도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의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다.



자연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A 형으로 유아기나 사춘기에는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성인이 되면 양적인 성장은 끝나고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C형과 같이 처음은 완만하지만, 어떤 시점부터 가속도 성장을 하는 것이 있다. 이 곡선은 암세포 곡선이다. 제동 장치가 듣지 않는 이 성장은 숙주를 무너뜨릴 때 까지 계속된다. 이 암세포 곡선이 현재의 자본주의 화폐경제의 성장곡선이기도 하다. 마그릿트 케네디는 만일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미 달러로 1달러를 연리 5% 복리로 예금하고 있었을 경우 1990년 시점에서 지구 체적의 1340 억 배에 달하는 예금 잔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 제도는 조만간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그녀가 지적하고 있는 현 통화제도의 문제는 자기가 빚을 내지 않았어도 이자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83년 서독 아헨 시의 쓰레기 수집 경비 12%가 이자의 지불에 쓰이고 1981년 서독 북부 상수도 38%가, 그리고 1979년 서독 평균 주택 77%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라는 것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자에 의해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부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야하고 세 들어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부자에게 이전되어 간다는 것이다.

마그릿트 케네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통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각 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일 지역통화 REGIO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지역 경제 보호
- 사용하지 않는 자원 활용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안정되고 순환하는 통화의 공급
- 설립 과정이 투명
- 지역 주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
- 지역 기업과 자본의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의 방지

케네디 여사는 한발레즈 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축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지역화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지로 거래의 방법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화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의 복지, 문화적 주체성,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경제적 교환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 땅에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화폐 체계를 통해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소개로 잘 알려진 지역통화 운동가 베르나르 비에테르는 이렇게 축하인사를 해주었다.

저는, 여러분이 지역 문제들을 대안화폐와 더불어 다루려는 5천여 공동체를 포함하는 세계 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안화폐 운동은, 여러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안화폐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혁명적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이타카 시의 이타카 아워 창시자 폴 글로버는 말한다.

미합중국달러는 세계의 가장 큰 빚쟁이가 아무런 실질적 토대도 없이 발행하는 엉터리 지폐이지만 <이타카 아워즈>는 우리가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실제 현실의 사람들의 시간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지역통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는다.

첫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는 불평등을 양산한다. 나눔과 협동의 관계를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변질시킨다.

둘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다. 지역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교류의 장이며 삶을 공유하는 생활의 장이다. 지역화폐의 기반이 되는 자율과 책임의 신뢰관계가 가능해지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화폐에서 특히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많은 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의 노동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재화를 끊임없이 외부로 빼앗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어 지구환경은 악화된다.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의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자립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역화폐가 적절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벌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필요하면 발행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돈은 참여자의 자율과 책임, 신뢰에 기반한 인간의 노동,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자연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그것을 다지고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VI. 지역품앗이<Local Exchange(Employment) & Trading System>운영 시스템의 개요(121)

■ 지역품앗이란

121) 한국지역품앗이 네트워크 준비위원회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지역품앗이 운동 설명회 자료(1999년 11월)에서 발췌

- ▶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회원 사이에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
-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물품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자기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노동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이다.
-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간의 교환제도이며, 지역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 지역품앗이의 특징

- 비영리로 운영된다.
-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 얼굴을 아는 회원간의 직접적인 거래제도이다.
- 지역화폐는 ‘얼굴을 가진’ 통화제도이다.

◎ 지역품앗이의 유의성

- 다른 사람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통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다.
- 공식적인 직업이 없어도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창출된다.
-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교환관계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연대감을 강화한다.
-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 교환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 지역중심의 경제활동은 비용절감적이며 환경친화적 경제에 기여한다.

◎ 지역품앗이의 운영원칙

- 거래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거래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 거래 내역은 전체회원에게 공개된다.
- 거래 내역은 각 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된다.
- (+) 또는 (-) 계정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 운영 요건

- 최소한의 회원
- 지역화폐
- 사무실, 운영요원, 최소한의 장비(전화, 컴퓨터 등)
- 지역품앗이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 정보제공을 위한 회보

◎ 운영 방법

● 회원 등록

- ▶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 ▶ 신규회원은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낼 수 있다.

● 등록소

- ▶ 회원들의 계좌관리 등 지역품앗이 운영을 위하여 등록소를 설치한다.
- ▶ 등록소는 회원간의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 ▶ 등록소의 운영비용은 회원의 등록비와 거래시 수수료로 충당한다.

● 회원 계좌

- ▶ 회원은 개인별 계좌를 갖는다.
- ▶ 회원간의 거래 내역은 지역화폐로 기록된다.
- ▶ 모든 계좌는 '0'에서 출발한다.
- ▶ 회원 계좌의 잔액은 거래 실적에 따라 (+) (-)로 정리된다.
- ▶ 회원은 물품과 노동은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기 전에 먼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 계좌로 기록된다.

● 지역화폐

- ▶ 지역화폐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 ▶ 지역화폐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중화폐의 가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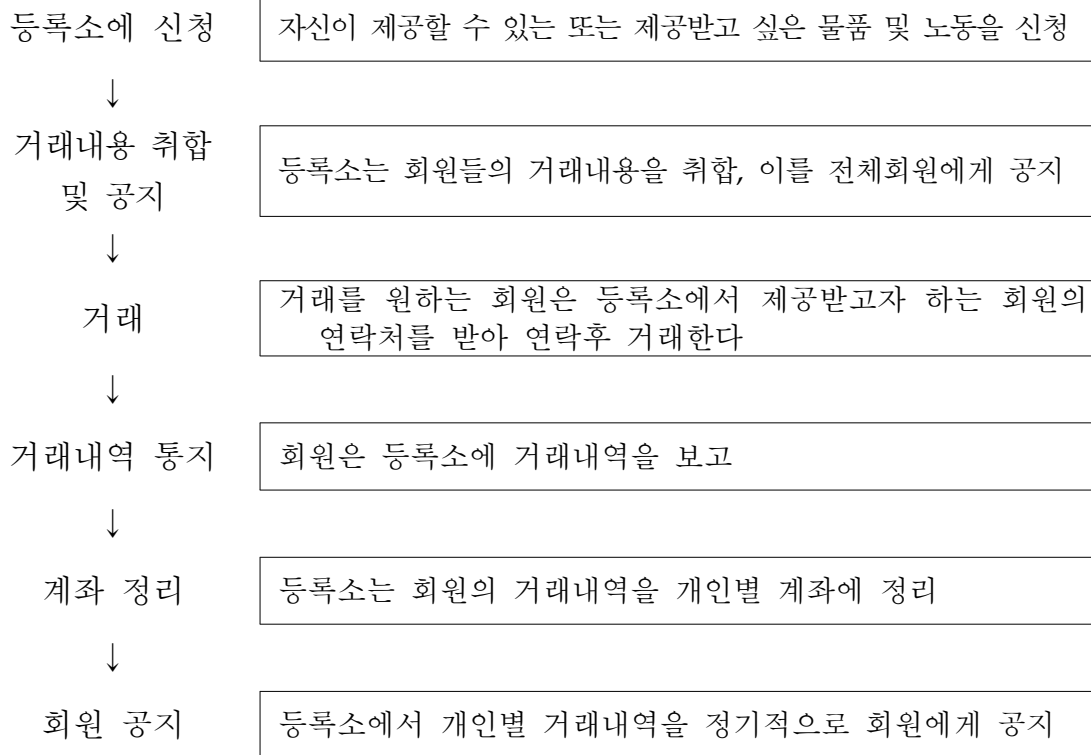
●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

- ▶ 거래되는 물품과 노동의 가격은 회원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 ▶ 거래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다.
- ▶ 회원들은 거래액의 일부를 시중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 거래 절차

- ▶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노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물품 및 노동을 등록소에 신청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이 원하는 거래내용을 취합하여, 이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 ▶ 다른 회원으로부터 물품 및 노동을 제공받고자 하는 회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에게 연락한다.
- ▶ 회원들은 거래내역을 등록소에 보고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의 거래내역을 회원의 개인별 계좌에 정리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의 개인별 거래내역 및 대차대조표를 정기적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알린다.

<지역품앗이 거래 절차>



- 회보 혹은 홈페이지
 - ▶ 등록소는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거래희망 목록과 개인별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거래 가능한 품목
 - ▶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과 노동의 교환이 가능하다.
- 아기

V. 한발레츠 소개

I. 사업의 개요와 목적

1. 사업의 개요

- 1) **단체명**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 2) **지역화폐 명칭**: 두루
- 3) **지역화폐 도입시기**: 99년 10월, 창립일 2000년 2월 1일
- 4) **회원수 및 회원 업소수**: 530여명, 회원업소:80여개
- 5) **회원의 연령대**(많은 순으로 나열):30대-40대-20대-50대-60대-10대
- 6) **개요**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여긴다. 서로가 제공할 것과 요청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노동과 시간, 재화가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템이다. 한발레츠는 이를 위해 지역 화폐이자 공동체 화폐¹²²⁾인 ‘두루’를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눈다. 식·의·주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는 물론 의료, 재활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재화를 교환하고 때로는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매개체로 ‘두루’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 울력, 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서로 돕고 보살피고 나누고 협동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한발레츠는 이를 오늘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다자간(多者間) 품앗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화된 시스템은 지구촌 각지에서 5,000여 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1999년 10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모태로 시작한 이래 현재 별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매년 10,000여건의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한발레츠를 통해 형성된 관계를 통하여 대전민들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료생협), 12년제 대안학교로서 대전 꽃피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대전지역의 호숫가 마을 품앗이 등 4개의 마을별 품앗이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지역통화 운동단체로 전국적으로 각 마을과 단체에 지역통화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지역통화운동의 확산을 위해 개발한 <품앗이 놀이>는 지역통화를 하고자하는 곳곳에서 시연되고 있다. 2009년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2회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에서 <지역통화와 의료생협>이란 주제 발표로 대안경제를 모색하는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7)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 ① 회원가입: 방문, 전화, 인터넷 가입, 월 5,000원, 3,000원+ 2,000두루, 혹은 5,000두루의 회비 납부
- ② 거래신청: 한발레츠 등록소에 제공 혹은 요청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한다.
- ③ 거래하기: 등록된 서비스나 물품을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알리면,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이 서로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최소 30% 이상은 두루로 거래하여야 한다. 현금 대 두루의 가치는 1:1의 이다. (1,000원=1,000두루)
- ④ 거래 성사 알림: 거래를 마친 회원 중 제공한 쪽(수입이 생긴 회원)이 거래내역(거래일, 거래회원, 거래품목, 금액 등)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등록소에 거래신고를 한다.
- ⑤ 계좌정리와 공지: 등록소는 회원의 거래내역을 정리 기록한다. 매년 연말에 각 회원의 계정을 정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계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웹 계정관리프로그램 완성)

<표 1. 한발레츠 거래도>

<표 2. 지역화폐 ‘두루’의 의의>

현 금		구분	두 루	
결과	원인		원인	결과
소극적 태도	중앙은행이 통제	화폐 보유	스스로 발행	적극적 태도
↓	↓	↓	↓	↓
배타적 관계	거래물품	관심사항	거래자	호혜적 거래
↓	↓	↓	↓	↓
zero-sum	불신, 경쟁관계	관계	신뢰, 협력관계	win-win
↓	↓	↓	↓	↓
빈부격차 증가	외부유출	재화	지역내 순환	빈부격차 감소
↓	↓	↓	↓	↓
생활고 증가	증가	생활비용	감소	생활고 감소
↓	↓	↓	↓	↓
여가의 감소	부족	현금	증가	여가의 증가
↓	↓	↓	↓	↓
정서적 고립감	공동체 해체	거래결과	공동체 강화	정서적 유대감

122) 의미나 번역에 따라 지역화폐, 지역통화, 공동체화폐, 녹색화폐 등 다양하게 불려지나 편의상 공동체 화폐로 통일한다.

↓	↓	↓	↓	↓
불가능	자원착취	지속가능성	순환	가능



2. 사업의 목적

1) 현실인식

현행화폐 제도가 인간과 생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맹목적인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운동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여겨 이에 대항하는 대안경제 운동, 그리고 지역생물주의에 입각하여 살림의 경제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2) 목적

- ① 도시에서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창출한다.
- ② 생산·소비·유통·재활용의 과정을 지역 내에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③ 실업자, 주부,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유희노동력을 개발·활용한다.
- ④ 이윤 중심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운동을 공동체 화폐로 연결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간다.
- ⑤ 앞의 네 가지를 위한 가장 유력한 도구의 하나인 레츠(LETS)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3대 슬로건

- ① 나와 이웃이 어울려 행복한 마을
- ② 자연과 조화로운 건강한 마을
- ③ 스스로 서고 스스로 다스리는 공동체 마을

3. 사업 추진 당시의 주된 배경(조직 내의 배경 또는 지역사회의 배경)¹²³⁾

1) 대전의 지역특성, 그리고 IMF

대전은 토착민보다 외지인이 많이 이주해와 사는 도시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주성이 비교적 낮은 곳이다. 또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지닌 다소 보수적인 도시이다. 이런 도시에서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 특히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화폐를 발행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 이후 국민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 주리라고 믿던 정부는 물론 기업도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생을 모색하는 소박한 생활방식을 확립하려는 운동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운동이었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 도입하는 일은 대전의 특수성 때문에 결코 쉽지않은 않았다.

2) 한발레츠의 출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그 후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에서 ’99년 6월부터 몇 차례 지역통화운동과 관련된 글을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10월 발행한 소식지에 ‘한발레츠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이 운동에 참여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한발레츠’에 시민들이 가입해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록자 동의서, 제공하고 싶은 것과 요청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사용자등록 가이드, 그리고 실제 거래내역과 연락처 등이 담긴 한발레츠 게시판의 예를 소개하였다. 또한 가입회원들이, 직접 거래하는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서투르기는 하지만 간단히 만화로 그려 홍보하는 노력도 시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개인적으로(박용남-편집자 주) 평소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의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기자와 PD 등에게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한발레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이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대체로 “거참 신기하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어떻든 지역 품앗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대로 그들은 여러 차례 언론매체에 이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지역’의 원칙을 세우다.

이에 힘입어 우리들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한 11월 초부터는 각계각층에서 문의전화와 쇄도하고, 심지어는 대전과 인접한 청주, 옥천, 공주, 옥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전주 등에서도 문의를 해 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하지만 대전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자격 부여한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인접지역에서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직접 시스템을 만들 경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그런 탓인지 좀처럼 생각보다는 빨리 회원들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에 등록소 운영 책임을 맡았던 담당간사(김성훈-편집자 주)가 직접 친지와 이웃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에 뛰어들기도 했다.

4) 홈페이지 개설(tjlets.or.kr)

이와 동시에 12월 초에 ‘한발레츠’의 독자적인 홈페이지(www.tjlets.or.kr)를 개설해 공개하자 이미 가입신청을 한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일부 회원들의 의견과 희망사항들이 방명록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구, 인천 등 타지역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답지했고, 심지어는 멀리 일본에서까지 한 유학생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긴 전자편지가 날아오기도 하였다.

123)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녹색평론 60호, 박용남)에서 일부 인용

5) 창립

2000년 1월에는 ‘한발레즈’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사카 아워즈’의 격월간 소식지 《아워 타운(Hour Town)》에서 “우리들은 모두 한 배에 탔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림을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슬그머니 복제해다가 ‘한발레즈’의 벽걸이 그림을 만들고, 그동안 회원들이 신청한 거래목록을 수록해 A4 용지 8면 크기의 게시판 창간호(2월 1일자)를 제작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샘이 깊은 물’이라는 전통찻집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김용수 선생(현재는 복송되어 북한에 거주함)을 비롯해 7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행사를 열었다. 이때는 떡과 과일, 김밥, 음료수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회원들 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레즈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교육하는 간단한 설명회와 함께 홍보 비디오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원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제작한 약 15분 분량의 비디오 상영도 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화폐인 ‘두루’를 사용해 가상으로 거래를 시현해 보는 ‘레즈 게임’과 회원들의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 날 우리들의 모임은 문화방송의 지방 뉴스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6)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

이렇게 ‘한발레즈’라는 이름의 배를 출범시키는 데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가 산과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사업이 지방의제21 사업으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데다 외부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한 일부 회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어 창립행사 이후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회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레즈 시스템’ 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둘째,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보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나 직장인보다는 전문능력을 가진 실직자, 프리랜서 등이 많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출발부터 또 하나의 ‘동호회’에 그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시작했다.

7) 관행화폐의 습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창립행사 이후에도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거래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에 참가해본 회원들은 ‘레즈 시스템’의 창시자 마이클 린턴의 지적처럼 “돈은 인치나 갤런, 파운드와 같이 비물질적인 단위”이고, 철학자 앨런 와트가 말한 바와 같이 “돈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가치를 교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측량단위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추상적인 이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벌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기존 화폐제도의 오랜 관습에 많은 회원들이 길들여져 있어 먼저 거래에 나서겠다는 생각 대신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자연히 타인의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낮은 사람과 접촉해 협상해야 한다는 어색함, 선뜻 그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물품이나 용역 앞에서 멈칫거리는 일 등이 자연스레 발생하여 거래건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

8) 도약의 계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품앗이 만찬 행사였다. 참여자들 사이에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거래방법을 학습할 방법이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해오도록 했다. 그 하나가 본인의 먹을 음식 외에 2~3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올 것,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수공예품이나 재활용품을 가지고 올 것, 세 번째로 장기가 있다면 준비해 올 것이다. 이 기획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서로 정성껏 준비한 갖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가져온 물품을 두루로 직접 거래하거나 수요자가 많을 경우 전액 두루로 경매를 붙여 거래방식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래, 악기, 춤 등을 추며 서로가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자 서서히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편, “거래자나 거래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마땅히 거래할 것이 없다”는 초기 회원들의 아쉬움은 한의 원, 레스토랑 등 안정적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업소의 가입에 따라 보다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거래횟수가 증가되었다. 물론 단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품앗이 만찬 등을 통해 서로 친숙해진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 회원들간의 친숙한 관계없이 가입한 회원업소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저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사업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1) 이웃의 가치가 재발견된다.

“이웃사람의 행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생활비용이 크게 증가된 것은 이웃의 상실과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재난을 홀로 감당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²⁴⁾

한발레즈 회원들은 누군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일이 있다고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곤 한다. “레즈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봐”

한발레즈의 현 두루지기(등록소 실무책임자)인 박현숙 씨는 한발레즈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부터 본인의 카드 대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에 들었던 비용, 여가 생활을 위해 써야했던 비용이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현금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도 최신 유행하는 제품 보다는 두루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구매하였고 식료품도 유기농 회원 농가로부터 두루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여가생활 역시 회원들과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박현이 회원은 그녀의 오빠가 유아용품점을 운영함에도 그곳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미안해 할 정도가 되었다. 임신복부터 아이를 출산한 이후 배냇저고리, 옷, 신발, 유모차, 보행기, 책, 장난감의 90% 이상을 두루로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새 것 보다 이웃의 손때가 묻어있고 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물건이 훨씬 정감어리다”고 말한다.

2)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고 신용은 공동체 활동, 거래횟수에 비례한다.

거래 중 월등히 높은 거래가 농산물, 의료관련 거래였다. 먹을거리와 의료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일반 상품으로 소비할 때 평소 믿을 수 없는 품목이다. 한발레즈라는 신뢰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건강의 욕구를 안심하고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왕성하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었으며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와 거래횟수가 많을수록 신용이 증가하였으며 신용이 증가할수록 거래도 늘어났다.

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할수록 작게 나누어진다.

한발레즈는 처음 시작부터 지역의 공동체 관계, 공동체 경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므로 지역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지역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운영하다 보니 지역의 개념이 레즈의 활성화 정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리가 멀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광역의 범위에서는 거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 관계 형성이 어려운 만큼 회원들은 자기 생활과 활동 범위 안에서 레즈 시스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되고 이를 위해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최근 대전지역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한 동단위 레즈가 4개의 마을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124) “공동체의 보존과 지역경제” (웬델 베리) 중에서

4)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평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이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 기준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간관계하에서 맺어진다. 한발레츠의 두루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재화를 가진 사람은 재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으로 이웃들과 나눈다.

5) 인간관계를 통해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을 거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자 개원 전의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것이 현재의 민들레의료생협이다. 공동육아어린이조합 소속의 회원들이 두루학교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대안교육을 고민하더니 대전푸른숲 학교를 만들었다.(현재 꽃피는 학교로 변경)

5. 사업개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와 주된 실시내용

1) 걸어온 길

<표3.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날 짜	내 용
· 1999년	10월부터 회원모집 시작
· 2000년 2월	70 여명의 회원이 모여 중촌동의 ‘샘이 깊은 물’에서 창립총회
· 2000년 11월	지역통화(LETS)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참여 (미내사클럽, 불교환경교육원 주최)
· 2001년 5월	한발레츠 등록소를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
· 2001년 5월	MBC 금요매거진, “두루는 나무입니다”(약 40분 방영)
· 2001년 9월	“한발레츠·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녹색평론 60호에 실림(박용남)
· 2002년 1월	KBS 취재파일 4321, “이것이 도시 품앗이”에 방영
· 2002년 2월	1차 회원 총회
· 2002년 3월	대전광역시 민간단체 등록
· 2002년 4월	대전의료생협(준) 주사무소인 법동으로 등록소 이전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 워크숍
· 2002년 8월	두루지폐 발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는 ‘참여자치시민상’ 수상
· 2002년 8월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민들레의료생협) 창립 (한발레츠 회원 주도, 303명의 조합원 중 150여명이 한발레츠 회원)
· 2002년 12월	2차 회원 총회
· 2003년 2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가 우수사례’로 선정
· 2003년 3월	한발레츠 회원 주축 대안학교 준비모임 ‘두루학교’ 인터넷카페에서 활동 시작
· 2003년 10월	등록소 실무자 일일 자원봉사체제로 전환
· 2003년 12월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소개(박용남 지도위원 옮김)
· 2004년 2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 사업 시작(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비지원)

· 2004년 2월	“풀무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지역사회 전망찾기” 참여(홍성 흥동일대) 3차 회원 총회
· 2004년 4월	대전푸른숲 학교 개교(12년제 대안학교, 한발레츠 회원 주도)
· 2004년 6월	대안사회 주민연대 공동소식지 “사람사이” 창간호 참여 (참가단체 등록)
· 2004년 9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한국교육방송 30년, 공사창립 4주년 특집 행복이란 무엇인가? 제 4부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약 40분)
· 2005년 3월	KBS 현장르포 제 3지대 “ 범동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방영
· 2005년 5월	일본 “지역통화세미나 in EXPO 2005” 초청받아 사례발표
· 2005년 10월	서울 청사에서 여성 가족부와 “한국공동체화폐연대” 간담회
· 2005년 11월	5주년 기념 “세계 공동체화폐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공동체화폐 연대(가칭) 발족
· 2006년 2월	EBS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살리는 위대한 돈 경쟁을 넘어 나눔으로” 방영(총 45분 분량)
· 2006년 10월	생명평화탁발순례 대전행사 공동주최 품앗이 만찬
· 2006년 10월	RTV, 시민방송 행복한 세상 만들기, “두루두루 기분 좋은 지역화폐”(40분)
· 2007년 2월	6차 회원 총회
· 2007년 4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생산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 2007년 7월	한발레츠 장소 이전
· 2008년 2월	7차 회원 총회
· 2008년 9월	녹색평론 102호,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운동, 박용남
· 2008년 11월	아름다운 재단 풀뿌리 시민단체 장비지원 사업선정(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 2008년 12월	전체회원 620세대, 1056건 거래, 거래총액:181,153,230원 (96,016,220두루)
· 2009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 2부작 [돈 나라 사람 나라], 제 1부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대안 사례로 약 10분 방영
· 2009년 2월	8차 회원총회
· 2009년 3월	한발레츠 10주년 기념, 전국 지역통화 활동가 좌담회(30여명 참석)
· 2009년 4월	한발레츠 10주년 기념 행사
· 2009년 11월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 사례발표(지역통화와 의료생협)

2) 운영현황

① 총회원수: 500여명

② 거래현황

<표4-회원별 두루 거래현황, 2003.12.31>

년도	거래건수	두루 거래액 (A)	현금 거래액 (B)	거래총액 (A+B)	두루비율 (%)	전년대비 증가율(%)
2008	10,569	96,016,220	85,137,010	181,153,230	53.0	39.9
2007	7,557	73,737,090	68,999,750	142,736,840	51.7	36.9
2006	5,520	56,637,340	36,371,350	93,008,690	60.9	16.3
2005	4,745	65,160,426	56,115,250	121,275,676	53.7	-3.5
2004	4,919	53,211,295	41,045,495	94,256,790	56.5	84.0
2003	2,674	37,516,285	36,955,940	74,472,225	50.4	77.9

2002	1,503	28,403,130	20,493,450	48,896,580	58.1	172
2001	553	8,813,300	8,677,500	17,490,800	50.4	92.7
2000	287	4,866,000	5,427,900	10,293,900	47.3	

<표5. 월별/ 분류별 거래내역표, 2003년도 기준>

구분	거래횟수	두루 거래액	현금 거래액	거래총액	두루 비율 (%)	2007년 거래횟수
농산물	2338	6,160,700	31,926,000	38,086,700	16.2	1636
의료	1742	18,388,610	24,159,210	42,547,820	43.2	1466
가맹점	1292	3,502,500	8,587,900	12,090,400	29.0	1071
재활용	1166	5,546,050	220,900	5,766,950	96.2	602
공정무역	232	561,500	2,907,500	3,469,000	16.2	-
음식	191	769,700	846,000	1,615,700	47.6	-
교육	562	5,446,000	11,803,000	17,249,000	31.6	278
생활용품	319	3,112,800	2,555,500	5,668,300	54.9	80
품	163	5,201,000	1,480,000	6,681,000	77.8	71
대여	102	560,700	602,000	1,162,700	48.2	25
후원	236	19,437,160	49,000	19,486,160	99.7	13
자원활동	895	14,373,500	0	14,373,500	100	335
월회비	1130	2,366,000	0	2,366,000	100	1174
급여	201	10,590,000	0	10,590,000	100	179
생산소모임	-	-	-	-	-	596
소계	10569	96,016,220	85,137,010	181,153,230	53.0	

③ 등록소 운영현황

가. 등록소 실무자 현황: 실장 1명 (상근, 자체 명칭은 두루지기), 협력두루지기(자원봉사) 3인

나. 등록소 재정

- 수입: · 월 2,000원의 회비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회비
 - 총 거래액의 5% 수수료

- 지출: · 실무자 인건비
 - 인쇄편집비
 - 홍보비

다. 등록소의 업무

- 일상사업: 회계, 회원계정관리, 홈페이지 관리
- 조직기획사업: 품앗이 만찬, 품앗이 학교, 유기농 직거래, 회원간 거래교섭, 소모임 지원
- 교육홍보사업: 회원가입 및 교육, 소식지 발행
- 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활동

④ 주요사업-한발레츠의 기본활동

<표6. 한발레츠 주요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	------

등록소 일상 업무	소식지 발행(격월), 품앗이 도우미(6개월 1회), 홈페이지 운영(메인), 계정관리(매일)
품앗이 만찬	두달에 한번 저녁에 모여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는 모임. 각자 만들거나 구입한 음식들을 2~3인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서 모인다. 이날은 회원 친목도모, 거래시 발생한 문제점을 의논, 물품을 두루로 교환하고 매회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
품앗이 학교	회원들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다수의 회원을 모아 강좌형식으로 진행한다.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하며 수강료는 전액 두루가 원칙이다. 컴맹탈출학교, 목공교실, 도예교실, 문화유산 답사학교, 우리옷만들기 등이 있다.
물품공유소	각자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품이나 자주 쓰지 않아 구입해 놓고도 잘 쓰지 않는 물품.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용을 억제해야 할 물품을 등록소에 등록시킨후 회원 사이에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트럭, 승합차, 고가의 옷, 디지털 캠코더, 빔 프로젝터 등이 등록되어 있다.
농산물 직거래	유기농 반찬가게, 도농두레, 밥상 나누기를 펼치는 생활협동조합의 하나인 두루부역으로 발전하였다가 중단되었고 현재 농산물 생산자모임이 결성되었다.
음식사업단 두루잔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한 사업단으로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매. 도시락, 잔치음식, 선물음식 등을 만들. 현재 10명의 참여자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동영화관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아이 때문에 영화관에 갈 수 없는 주부도 대상으로 한다.
교육활동	전국의 지자체,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에 지역통화 운동에 대한 소개. 품앗이 놀이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통화 운동 확산에 주력
연대활동	레츠관련 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 대전지역마을어린이 도서관운동의 마을돈 사업과 연계시작

VI. 지역화폐와 의료생협

1. 한발레츠로부터 의료생협까지

한발레츠 설립 초기 한방의사가 가입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보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 두루, 비보험 진료 50% 두루 적용)하였다. 얼마후 양방의사가 가입하면서 지역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의사라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와 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주치의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이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의료생협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보하였다. 이에 한발레츠 회원 출신의 의료생협 직원들이 월급의 30% 가량을 지역화폐로 받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생협에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계산하게 되었다.

현재는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조합원의 활동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2. 새로운 도전 - 건강화폐

스태판 브룬후버(Stefan Brunnhuber) 박사는 2005년 대전 한발레츠를 방문하여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강 화폐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독일 지방 의료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건강 화폐(Health Token)"를 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로 있다고 했다. 의료보험회사는 가능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건강 교육과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브룬후버 박사는 그 이유가 교육이나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하는 일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건강 교육을 받거나 금연, 혹은 살빼기를 실천할 때 그 대가로 건강 화폐를 주자고 제안했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지역주민들이 건강 화폐를 모아 의료보험회사에 주면 그만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야채가게 등의 회원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 사이에 유대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이 또한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이윤을 중요시 여기는 의료보험회사가 이러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이해하고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의료보험회사의 관심은 오로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때 지역화폐 운동의 의의를 말할 필요는 없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3. 건강화폐의 적용

1) 개요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건강 화폐(두루)를 지급함.

2) 제안배경

임원, 위원회, 지역모임, 소모임 외 각종 의료생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용에 혜택을 줌으로써 조합을 활성화하도록 함. 생활협동조합의 성패의 관건은 조합원의 참여에 있는 만큼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그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봄. 혜택을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함.

3) 방법

조합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두루나 일반진료비 할인율을 차등적용하여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일종의 이용고 배당이 될 수 있음. 병원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용에 따른 이용고 배당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각종 공동체 사업,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진료비 할인, 두루지급을 할 필요가 있음. 임원이나 위원회 활동은 물론 건강교실, 건강실천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건강실천단에 참여하여 몸무게를 5kg 감량하기로 하여 이 과정에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4. 건강화폐 실적

구분	항목	금액(두루)
수입 20,495,110 두루	의원/한의원/치과 진료수입	20,495,110
	후원금/장비대여/식대등	
지출	급여	6,450,000

18,498,500 두루	자원활동	3,735,000
	건강증진활동	1,765,000
	이사회 활동	2,840,000
	위원회 활동	1,100,000
	대의원 활동	415,000
	인쇄출판비	1,038,000
	소모품 구입	93,500
	식료품 구입	162,000
	기타 지출	900,000
수지합계	수입-지출	1,996,610

VI. 지역통화운동의 확산을 위하여-품앗이 놀이(Do it LETS)

1. 시스템 설계의 기본방향

- 1) 지속성: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되 개인의 가입과 탈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2) 개별성: 참여자 각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돕고 스스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기
- 3) 전체성: 필요한 것을 얻고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하여 1:1 품앗이가 아닌 다자간 품앗이
- 4) 다양성: 욕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환을 위해 거래품목별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여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
- 5) 투명성: 계정방식 채택
 - 화폐발행비용이 들지 않음
 - 거래자, 거래품목, 화폐발행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거래 학습효과와 새로운 거래를 창조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음
- 6) 자발성: 시스템 관리자나 등록소가 아닌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교환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Workshop) 준비

- 1) 인원확보: 거래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적어도 20인 이상 참여
- 2) 장소확보: 20인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아늑하고 집중된 공간
- 3) 배치: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원탁형 배치가 이상적임.
- 4) 시간확보: 2시간 30분~3시간
- 5) 장비와 기자재: 한발레츠 다큐멘터리 파일, 동영상 상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 칠판
- 6) 소도구: 필기도구, 메모지, 전지

3. 품앗이 놀이

- 1) 정의
 - 품앗이 놀이는 자신이 요청할 것과 제공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이것을 나누고 협동할 수 있도록 참여자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 회의를 말한다.
- 2) 개념
 - 이것은 특히 지역화폐 운동의 한 형태인 레츠 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운영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품앗이 놀이의 영문 표기는 레츠를 하자는 의미로 <레츠를 하자(Do it LETS)> 라고 부르기로 한다.
- 3) 의의
 - 이웃이 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

- 돈에 가려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 자연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
-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이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 2~3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레즈 시스템을 이해하고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한다.

4. 품앗이 놀이 요약

- 1)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고 부르기 쉬운 돈의 이름을 정한다. (마을의 상징, 특산물, 살림계의 비전 등을 담은 말)
- 2) 요청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 3) 제공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 4) 이 모두를 한 곳에 모아 품앗이 목록을 만든다.
 -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한데 묶어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만든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다.
 - 이 일을 진행할 거래목록 관리자를 정한다.
- 5)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대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다.
- 6) 찾아낸 것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자와 요청자를 초대하여 역할극을 한다.
 - 연락방법, 인사, 나눌 내용 확인, 금액 정하고 합의하기 등을 상황을 주고 직접 역할에 따라 행동해 본다.
- 7) 거래 후 계정정리를 위하여 계정관리자를 정한다. 거래목록 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다.
- 8) 계정관리자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계원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한다.
- 9) 계정관리자와 약속된 거래 보고자(주로는 제공자)가 다시 역할극을 한다. 거래 일시, 요청자, 제공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은 필수 기록 항목이 된다.

VII. 전국 지역통화운동단체 현황

<대전·충남>

- 지역품앗이 한밭레즈
- 호숫가마을 품앗이
- 관저품앗이
- 중촌동짜장 어린이도서관 품앗이
- 마루어린이 도서관 품앗이
- (사)풀뿌리 사람들 품앗이사회학교 품앗이
- 중구 품앗이(대전 중구청)
- 서천 레즈

<서울·경기>

- 과천 품앗이
- 어울림 품앗이
- 성미산 지역화폐
- 성남 문화통화
- 미래를 내다 보는 사람들
- 의정부 레즈

<인천>

- 이웃사랑 품앗이
- 인천의제 21추진협의회 녹색경제분과
- 인천 부평구 마을 공동체 동네야 놀자

인천연대

<대구경북>

구미사랑고리(구미)

<부산경남>

사하품앗이

가마골품앗이

<기타>

한국 여성노동자회 전국 지회(각 지부)

두레생협연합회(소속 각지역 생협)

간디학교(제천)

꽃피는 학교(전국)

VI. 환경운동연합에 드리는 제언

○ 지역통화는 환경과 생태 운동을 전개해나갈 때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 자체의 녹색화폐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단위의 화폐 유통 시스템을 만들지는 마세요. 녹색대학 등에서 실험한 그린네트워크의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근거해야 하며, 따라서 지역에 근거할 것을 권합니다.

○ 꼭 환경운동연합 자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벗어나서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각 마을에서 지역화폐 운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단체로 이 지역화폐 운동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회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후원회비를 지역화폐로 받으세요. 이렇게 모여진 지역화폐로 활동가들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지역화폐로 인건비를 받으면 그렇게 받은 인건비로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세요. 그러면서 이웃과 생활을 나누고 생활속 환경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외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각종 수익사업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녹색가게 라든가 등등의 사업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대전에서는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품앗이 은행 활동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하는 한편, 독일의 김가우어 시스템등 새로운 지역통화운동을 위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통화운동 단체간 연대가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함께해주세요.

지역에서 건강마을 만들기 :

환경운동과 지역보건의료운동의 발전적인 결합에서 희망을 찾다

임종한(한국의료생협연대 회장, 인하대의대 교수)

의료개혁이 절실한 국내 의료현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은 소득수준의 증가, 생활환경의 개선,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에 힘입어 짧은 기간동안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등의 지수등을 볼 때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미흡한 상태이며 국민들의 욕구 충족에 부족하다. 국내 건강수준을 외국과 비교하면 사실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2001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당뇨 사망률이 OECD 국가내에서 1위로 높으며 최근 40년동안의 당뇨 사망률 증가도 역시 1위이다. 그 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에 이어 4위이며 암사망률은 유방암 전립선암 사망률은 가장 낮지만, 폐암, 간암, 위암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전체적인 암사망률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결핵사망률과 결핵발생률 역시 OECD 국가내에서 1위이며, 이외에도 1-4세 아동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질병에 대한 지표는 아니지만 폐암등 질병 발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흡연율은 남성의 경우 62%로 OECD에서 1위이다¹²⁵⁾.

결핵을 제외하면 급성전염병은 감소한 반면, 암·고혈압·당뇨병·뇌심혈관질환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치료위주의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보건의료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하다. 의사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단과 전문의가 양산되어 활동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6%에 달하고 있으며, 병원의 경우도 도시지역에 87.6%가, 병상의 85.9%가 집중되어 있는 등 도시지역에 자원이 집중되는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안과·피부과 등 특정 과목에 집중되어 의료체계의 계속성을 위한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있다.

또한 3차 의료기관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현상이 여전하고 의료기관간 기능및 역할이 미분화되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상 불편 가중 및 불필요한 의료비의 상승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¹²⁶⁾.

지난 수십간 한국에서 의료에 대한 공적 부담이 증가되어 왔으나, OECD 72.5%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다. 비교적 높은 개인 부담은 실질적인 본인부담으로 이어지고있다. 이는 2005년 전체 의료 비용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7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고령화'에 진입했다. 또한 2019년 노인인구가 14.4%로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단지 19년만에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125) 나백주. 평생건강관리와 지역보건의료. 지역사회의학의 현실과 지향(제9장). 보문각 출판사 2006. 245쪽.

126) 보건복지부. 2006년 보건복지 백서 2007.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총 인구는 3% 증가한 반면 고령인구는 총인구 증가율의 9배가 넘는 28%가 증가했다.

평균 수명은 탄생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수명 즉, 0세 기준 평균여명이다. 평균 여명은 그 인구 집단의 건강이나 복지를 포함한 삶의 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관인 UNDP(유엔개발계획)에서는 매년 [인간개발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인간 개발의 수준을 국제 비교하여 그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순위를 매김에 있어서 크게 고려되는 것이 평균 수명이다.

1960년에서 2000년까지의 40년간 OECD 회원국들의 평균수명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 10년이상 늘지 않았으나, 한국은 동기간 중의 평균 수명의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23.1년이나 높아졌다.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의 급증,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특별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다가올 사회에 보건의료비용의 급증을 가져와 우리사회에 큰 부담을 작용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와 자원을 충분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사회전체에 생산력의 저하와 삶의 질 저하라는 큰 질곡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한국에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이다. 의료비 증가중에서도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전체 의료비 증가를 가져다주는 큰 원인이기도 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의료비는 비노인층의 2.4배가 되어있다. 고령자에의 의료비는 1990년에는 10.8%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7.4%, 2002년에는 19.3%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의료비는 16배인 3조 7,000억원이 되었고 2011년에는 12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치매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치료및 간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 수가 2003년 83만명에서 2020년에는 15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동 기간중에 노인의료비는 4배로 되어 8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취약한 고령층이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의 진행과 더불어 지역 및 계층간의 건강 불평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생활조건 개선으로 앞으로도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은 명확하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양극화, 특히 소득과 교육, 고용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과 계층간의 의료 이용과 건강수준의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¹²⁷⁾.

현재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는 취약해진 상태이고, 질병 예방 및 관리 능력의 상실, 비효율적인 구조로 사회적인 부담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정부는 사회적 요구와는 상반되게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높다.

사회 환경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은 낮고 왜곡되어있다.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가고 있다. 한국의 보건 의료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여러 형태로 감지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 구조¹²⁸⁾, 의료의 왜곡의 심각한 문제가 문제로서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함께 세운 의료기관이 바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활협)이다. 지역주민들

127) 신영전·김창엽, 보건의료 개혁의 모색, 한울아카데미 2006 19-34쪽

128) 김창엽,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보장제도, 참여연대 정책강좌자료집

의 건강을 지키는데 지역주민들과 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요한 진료사업의 내용을 정해서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 의료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의료 질 관리의 획기적인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

아직도 많은 사람들(특히 개업 전문의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치료 중심 진료활동(일차진료)을 일차의료와 혼동하고 있다. 증상이나 상병을 가지고 동네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단지 치료하는 일차진료는 일차의료와 개념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파편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진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포괄적인 일차의료체계이다. 일차의료는 단순한 일차진료(primary medical care)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으로서, 제도적으로 주민이보건의료 체계에 처음 접하는 관문(first contact care)이며, 기술적으로는 예방과 치료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comprehensive health care)를 의미한다¹²⁹⁾.

일차의료는 그 나라의 의료서비스의 질, 비용, 접근도를 좌우한다.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서 점차 심각해지는 건강불평등, 건강의 양극화 문제의 해결, 건강증진과 예방적인 개입을 통한 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선진국에서 각나라의 특성이 체계 형태, 재정조달, 일차의료제공형태, 세부전공전문의 비율, 전문가 수입, 비용 분담 등 9개의 보건의료 특성과 의료관행의 특성(6): 첫 방문, 연속성, 포괄성, 조정능력, 가족-중심, 지역사회 중심 등 6개의 의료관행에 따라 0 에서 2점의 점수가 매겨졌다. 각 국가는 일차의료의 견실함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점수가 높을수록, 일차의료강했다¹³⁰⁾ 일차의료강한 나라일수록 의료비용이 적게 들며, 출생기 저체중비율, 영아사망률의 저하등 건강지표가 좋게 나타났다¹³¹⁾.

여러 증거가 살펴보면, 미국은 수십년의 일차의료의 쇠퇴의 결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뒷처져 있다. 오마바정부도 의료개혁을 국가의 중요 개혁과제로 삼고 있다¹³²⁾. 쿠바의 보건의료체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선진화된 건강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¹³³⁾.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차의료 점수가 매우 낮으나¹³⁴⁾, GDP 대비 보건 의료비용 지출 비용은 5.6%로(2004년기준), 일본의 8.0%, 영국의 8.1%, 프랑스의 10.5%, 독일의 10.6%, 미국의 15.3%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 대비 건강수준을 고려하면, 국내 의료체계가 그나마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국가

129) Vuori H. The role of the schools of public health i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Health Policy. 1985;4(3):221-30.

130) Starfield B. Primary care visits and health policy. CMAJ. 1998 Oct 6;159(7):795-6.

131) Starfield B, Shi L. Policy relevant determinants of healt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ealth Policy. 2002 Jun;60(3):201-18.

132) Health Aff (Millwood). 2009 Jul-Aug;28(4):1136-45. The political economy of U.S. primary care. Sandy LG, Bodenheimer T, Pawlson LG, Starfield B.

133) Dresang LT, et al. Family Medicine in Cuba: 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an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J Am Board Fam Pract 2005;18:297-303

134) 안상훈, 우리 나라 일차의료 수준의 평가 및 선진국들과의 비교 분석. 가정의학회지2001; 22(4): 483-497

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보건의료비용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민간주도의 현 의료체계는 일부 종합병원으로 인해 상업화, 고급화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일차의료 등에서 의료의 질 저하, 의료의 형평성의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¹³⁵⁾.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공공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의료개혁에 있어 그 핵심적인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보건의료 개혁방향으로는 첫째,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의료서비스가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질병예방, 치료, 재활등으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둘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네의원은 현재와 같이 환자를 더 유치하기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사 인력의 교육과 양성과정이 전면적으로 개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급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간 소유의 병원이라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민간 병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경쟁을 관리해 공공의료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왜 의료생협인가?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한 시설을 설립, 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의료생협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건강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단체 둘째, 예방보건사업과 이것을 보장하는 제도 확충을 중요시 한다. 셋째,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소모임, 반모임을 구성한다. 다섯째, 환자를 찾아가는 병원이다. 성낙진의 연구(2007)에 의하면 생협의원, 개인의원, 대학병원, 보건소등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평가해보았을 때, 평생건강관리척도, 지역사회 기반척도, 일차의료접근성척도, 전화상담과왕진에 의한 접근성척도에서는 생협의원의 점수가 제일 높았으며, 생협의원에서 일차의료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¹³⁶⁾. 의료생협에서는 의료분야의 시민참여가 의료개혁에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지역단위별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투명한 운영구조와 더불어 사회의 요구에 맞게 주치의제도, 지역보건사업등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의료개혁에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현재의 보고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건과 사회 부조를 위한 생협은 300개 이상의 의료생협이 존재한다. 의료생협은 3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소비자 생협, 의료제공자의 생협, 주체가 협동한 형태의 의료생협이 .

135) 이상이, 한국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제 12집, 2002

136) 성낙진, 가정의학전문가가 근무하는 기관 구조가 일차의료 수행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2007: 28(11), Suppl. 26

유럽에는 의료 제공자 생협이 ,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생협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의료생협에서는 . 조합원들은 오직 출자자와 이용자로만 남으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생협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명백하게 발전시켜가는 협동체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 의료생협의 설립은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1996년), 안산(2000년), 원주(2002년), 서울(2002년), 대전(2002년), 전주 (2003년), 함께걸음 의료생협(2005년), 용인해바라기(2007), 청주아울(2007), 성남(2008), 수원새날(2009) 등으로 이어져 한국에서도 의료생협활동이 본격화하고 있다¹³⁷⁾. 안성의료생협은 안성농민회와 연대기독교학생회의 오랜 지역활동의 성과 속에 탄생된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인 반면, 인천평화의료생협은 기독교청년의료인회에서 평화의원을 먼저 만들어 지역기반을 만든 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료생협을 세웠고, 안산의료생협은 안산 시민의 모임, 동의학민방연구회 등에서 의료생협을 만든 사례이고, 원주의료생협은 원주지역 신협과 생협 등 지역협동조합이 힘을 합해 원주 의료생협을 설립했고, 대전의료생협은 한발렛츠라고 하는 지역품앗이 공동체와 대전 인의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을 통해 태동되었고, 전주의료생협은 전주보건의료인운동과 지역공동체운동이 기반이 되어, 함께걸음의료생협은 장애우연구소 회원들이 지역에서 장애우들을 위한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힘을 꾸며 만든 협동조합이다.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은 장애아동 부모모임에서, 성남과 수원새날의료생협은 지역 시민단체와 생협 조합원의 힘으로 창립되었다. 만들어진 의료생협 하나하나가 조합원들의 땀과 피로서 만들어졌으며, 또한 참여하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에서도 의료생협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 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의료생협의 설립 주체들을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농민과 지역주민공동체, 보건의료인운동, 협동조합운동등으로 여러 형태의 지역사회운동이 의료생협을 통해서 지역내 의료복지기관의 경영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사회에 의료복지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안성, 인천평화, 안산, 원주, 서울, 대전, 전주, 함께걸음, 용인해바라기, 청주아울, 성남, 수원새날 등을 통해 축적된 의료생협의 경험이 다양한 시민, 지역사회 운동체로 확산되어, 지역사회내에 새로운 보건의료 및 복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생협을 통한 건강사회로의 전망 및 향후 과제

고령사회로의 진입,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집중되는 건강피해, 늘어나는 의료복지요구 등을 감안할 때, 의료복지분야는 협동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건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의료생협은 의료인과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건강할 권리를 확대해온 귀한 전통을 이룩해나가고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선진의료복지체계 구축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의료인과 시민들이 만든 이러한 공익적인 의료복지체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그 역량에 달려있다.

137) 한국의료생협 홈페이지 <http://www.medcoop.or.kr> 접속 2007. 9.8

현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체계를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때문에 의료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현 의료체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잘 조직해 간다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의료보장의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시민들의 참여 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보건의료조직으로 의료생협은 분명 기존의 민간, 공공부분과 구별되어 제 3부분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제 3 부분으로서 의료생협에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의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시민 참여가 중시되는 보건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의료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다.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quality assurance)에 있어 시민들의 평가와 참여는 이제 필수적이고 여겨진다. 일차의료부문에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체계가 비용 절감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료 시범사업, 주치의제, 최근에는 단골의사제 등으로 시도가 되어 지고 있지만, 이것을 추진할 의료조직, 주민의 참여가 확보되지 못하여 성공적인 결실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 나라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일차의료모델, 지역예방보건사업 모델을 만드는 일로 의료개혁에 있어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협동과 자치를 중시하고, 그 자체가 주치의 제도, 시민참여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우리 나라에서 일차의료의 강화,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서비스, 지역사회에서의 영세 사업장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료중심의 대형종합병원에서 수용하기 힘든 예방과 재활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 것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과제의 하나이다.

둘째, 환경운동과 지역보건의료운동의 결합: 지역사회에 예방보건관리체계 구축

과거 건강의 문제가 단순히 영양부족이라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된 것에 비하여, 오늘의 건강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러 유해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이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질병 예방과 예방체계의 구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 노인의료비의 급증으로 의료보험의 재정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각종 만성질환의 합병증 발생을 줄여 줄 수 있게 만성질환의 여러 위험인자들을 사전에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도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만약 유해물질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공단 인근 열악한 주거환경의 서민들, 영세사업장

근로자, 여성, 어린이 등 사회경제적, 생물학적인 약자들이 우선적인 피해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구조속에서 사회적인 약자에게서 오염되지 않는 환경에서 살 권리마저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생협은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추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할 원인들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가 과도한 질병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환경오염에 취약한 사회적 생물학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환경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환경을 건강하게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기에는 지역보건의료운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환경운동과 지역보건의료운동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복지체계 구축

그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빠른 고령화도 우리사회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우리사회에 진입해있으면서도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의료 안전망이 제대로 안 갖추어진 것이 우리사회의 중요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생협에서 가정간호센터, 데이케어서비스 운영 등 지역사회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 시설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인들을 위한 사회 의료복지안전망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일본의료생협이 개호보험 도입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의료생협이 개호보험도입, 노인들을 위한 재활 및 치료시설 구축, 자원봉사체계 구축등 사회 의료복지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는 고비용 저효율의 의료구조의 개혁

현재의 의료체계가 고비용 저 효율의 의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료의 왜곡의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사회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한 의료생협 역시 이 구조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의료체계가 건강해 질 수 있도록 여러 시민, 의료인단체와 힘을 모아야 한다. 우선 낭비적인 의료 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의료의 본격적인 구조와 연관되어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는 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적절히 통제할 다른 방도가 없다. 일차의료에서는 인두제나 봉급제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입원에서는 대안들(DRG 등)이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보건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사회내에서 재활서비스, 노인수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통합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수발보험의 도입, 의료복지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복지체계의 개혁작업에 의료생협이 여러 시민, 의료인단체와 더불어 적극 참여해야한다.

기존 공공의료부문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감시하고, 공공의료부문 의료 개혁을 촉진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공공의료부문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고, 당연히 시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마치 개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있다. 공공의료부

문이 개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개혁모임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이 부문에 관심을 가지도록 연계하고, 또 전문성의 뒷받침을 하는 것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역할로 중요하다.

다섯째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생활의 재검토와 재정립, 건강한 동네 만들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깨끗한 삶터 만들기의 형태로 여러 시민·환경, 지역주민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건강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이러한 활동이 전개하고 있는 만큼, 환경, 건강, 교통, 복지, 문화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주민자치와 협동의 원칙 속에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가령, 인근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천식 등 어린이 건강 피해 발생의 구체적인 현안이 발생했다고 하자. 이럴 때는 조합원들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 수집,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구체적인 해결 방안 도출, 지역주민들의 조직화와 실천 역량 구축 및 해결 등으로 주민자치에 의한 힘으로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경험 등을 축적해나가야 한다.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킬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생활공간과 일하는공간에서 새로운 의식변화와 협동의 힘들이 조직화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의 희망을 이제 찾기 힘들다. 사회 밑바닥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힘을 찾아야 하며, 이를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무기력한 모습도 이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진보에의 꿈을 꾸면서 환경운동도 지역보건의료운동도 협력하고 또 발전적인 결합을 해야 한다. 시민운동은 시민속으로 지역으로 더 내려가라. 새롭게 비상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하라.